



##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박사학위논문

도시환경조형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 재구성과  
미술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이 은 래

도시환경조형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 재구성과  
미술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A Research on Restructuring Social Capital and  
Utilizing Art Education in Urban Environment  
Sculpture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이은래

도시환경조형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가치 재구성과  
미술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연구

A Research on Restructuring Social Capital and Utilizing  
Art Education in Urban Environment Sculpture

지도교수 조 의 현

이 논문을 미술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미 술 학 과

이 은 래

이은래의 미술학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     |          |         |
|-----|----------|---------|
| 위원장 | 조선대학교 교수 | 조윤성 권기영 |
| 위원  | 조선대학교 교수 | 손영미 원영  |
| 위원  | 조선대학교 교수 | 임채형 안나미 |
| 위원  | 전남대학교 교수 | 김철우 원영  |
| 위원  | 조선대학교 교수 | 권기영 원영  |

201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                                       |           |
|---------------------------------------|-----------|
| <b>I. 서 론</b> .....                   | <b>1</b>  |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 1         |
| 2. 연구의 대상 및 구성 .....                  | 5         |
| <b>II. 이론적 배경</b> .....               | <b>6</b>  |
| 1. 환경조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 6         |
| 1) 환경조형의 개념 .....                     | 6         |
| 2) 환경조형의 기능 및 특징 .....                | 8         |
| 3) 환경조형의 영역 .....                     | 13        |
| 2. 환경조형의 형성과 지원제도 .....               | 19        |
| 1) 환경조형의 형성 .....                     | 19        |
| 2) 환경조형 지원관련 제도 .....                 | 35        |
| 3.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고찰 .....               | 47        |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                   | 47        |
|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                   | 52        |
| 3) 사회적 자본의 기능 .....                   | 54        |
| 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                 | 58        |
| <b>III.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환경조형</b> .....     | <b>62</b> |
| 1. 도시공간에서의 사회자본 창출 .....              | 62        |
| 2. 환경조형 사회적 자본속성 .....                | 70        |
| 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환경조형 활용의 선행조건과 방향 ..... | 80        |

|                            |            |
|----------------------------|------------|
| 1) 시민사회의 접근 .....          | 81         |
| 2) 정부조직의 접근 .....          | 82         |
| <b>IV. 결론을 위한 논의 .....</b> | <b>85</b>  |
| 1. 환경조형을 위한 수업계획의 방향 ..... | 85         |
| 2. 환경조형 활용의 교육의 주안점 .....  | 88         |
| 3. 환경조형을 이용한 미술교육방안 .....  | 90         |
| <b>V. 결론 및 제언 .....</b>    | <b>96</b>  |
| 1. 연구 결과 요약 .....          | 96         |
| 2. 시사점 .....               | 98         |
| 3. 연구의 한계점 .....           | 99         |
| <b>참고문헌 .....</b>          | <b>100</b> |

## 표 목 차

|  |    |
|--|----|
| (표 1) 환경조형의 기능 .....                   | 11 |
| (표 2) 한국·미국·프랑스에서 환경조형 관련 정책의 차이 ..... | 47 |
| (표 3)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요 정의 .....           | 51 |
| (표 4) 사회적 자본의 특성 .....                 | 54 |
| (표 5) 사회적 자본의 기능 .....                 | 57 |
| (표 6)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              | 61 |
| (표 7) 초등학생, 중학생의 미술교육내용 .....          | 92 |
| (표 8) 고등학생, 미술교육내용 .....               | 93 |
| (표 9) 환경조형물을 활용한 미술교육계획 .....          | 95 |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논문의 구성 .....                               | 5  |
| (그림 2) 자유의 여신상 .....                              | 14 |
| (그림 3) 조형의자 사례 .....                              | 15 |
| (그림 4) 경기도 화성 메타폴리스몰 분수대 .....                    | 16 |
| (그림 5)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틀 조형물 .....                     | 17 |
| (그림 6) 로셀의 비너스 .....                              | 20 |
| (그림 7) 강화 부근리 고인돌 .....                           | 21 |
| (그림 8) 이집트의 스피르크스 .....                           | 22 |
| (그림 9)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                        | 23 |
| (그림 10)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                 | 24 |
| (그림 11) 투라이아누스 황제 원주 전경 .....                     | 25 |
| (그림 12) 트라이아누스 원주 부분 .....                        | 25 |
| (그림 13)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                        | 27 |
| (그림 14) 베르니니 ‘네 강의 분수’ .....                      | 28 |
| (그림 15) 로댕의 지옥의 문 .....                           | 29 |
| (그림 16) 움베르토 보치오니 ‘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특이한 형태’ .....      | 31 |
| (그림 17) 콘스탄틴 브랑쿠시 ‘입맞춤’ .....                     | 32 |
| (그림 18) 신라시대 ‘다보탑’ .....                          | 34 |
| (그림 19) 백제 무녕왕릉 석수 .....                          | 34 |
| (그림 20) 미술 전시기관 증가추이(1900-1979) .....             | 40 |
| (그림 21) 조나단 브롭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 (서울, 홍국생명 사옥) ..... | 72 |
| (그림 22) 이순신 장군 동상(광화문) .....                      | 73 |

|                                      |    |
|--------------------------------------|----|
| (그림 23) 니콜라 살비의 ‘트레비의 분수’ - 로마 ..... | 75 |
| (그림 24) 밀레니엄타임(목동 주상복합 파라곤 앞) .....  | 76 |
| (그림 25) The Space(정대현) .....         | 77 |

# ABSTRACT

## A Research on Restructuring Social Capital and Utilizing Art Education in Urban Environment Sculpture

Lee Eun-Lae

Advisor : Prof. Cho-Eui Hyun Ph.D.

Major in Art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environmental modelling as a social asset and its educational value,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environmental education. Students in adolescence hav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the urban environment and think of the environment they live in through public art which is closely related to life. Environmental modelling is a sculptural work of art an entire society shares, and can enhance social communication and a sense of belonging to the society they live in. Such environmental modelling has educational effects on the harmony of cities with art, consolidation of social networks, and promotion of observational skills, thinking power, institutions, imagination, expression, creativity, aesthetic sense, and emotion. Environmental modelling affects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beyond its installation for the simple purposes of ornamentation and beautification. Therefore, art education using this can release the emotional anxiety from the dull living spaces of modern people,

help form social networks and enhance citizen's consciousness of participation in a community.

Art education using environmental modelling is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eriod. This study suggested that ar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according to the period based on the curriculum and objectives. Specifically, art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n grades 3 and 4 should guide them to observe objects around them while achievement goals relating to modelling and how to express it. They observe natural and artificial things using diverse physical senses and say what they feel about them for achievements as an educational goal.

Art educ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in grades 5 and 6 should encourage them to think about making intentions and objectives. As environmental modelling inherently contains the intention of those who made it, this period should focus on how the intention of expression is applied to modelling.

In middle school, art education should focus on how modelling harmonizes with society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is means that art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harmony betwee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objects.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period should encourage students to understand the function of art, that is, the artistic expression and social communication environmental modeling that a visual language has. That is, students have to understand the diversity in the functions of art, analyse and interpret the artistic characteristics of objects to appreciate diverse viewpoints, and understand them in the contexts of history,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lso, art education should consider the original functions of environmental modelling such as creating a better and more practical urban appearance and the expansion of social assets. It is expected that diverse environmental modelling works and further support for them will be prepared.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과거로부터 인간의 삶은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도시의 발달과 산업화로 인해 인공적인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점점 지대하다. 현대인은 자연과 인위적 환경을 구성하는 조형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문명의 발달이 가져온 산업의 다양화, 분업화 그리고 이에 따라 도시 집중현상, 도시의 획일화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인류의 삶은 각박해 지고 있으며, 인간성 상실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풍요로움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 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풍요로움을 높이는 방법으로써,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의 조성, 환경의 예술화 및 환경조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대표적 양상으로써 후기 모더니즘에서 파생되어 나타난 환경조형은 삼차원적인 형태와 거대 규모, 건축과 주변 경관에 대한 새로운 공감으로의 환기를 촉구함으로써 환경조형의 창조라는 공공적 영역을 탄생시켰다<sup>1)</sup>. 이러한 환경조형은 열린 공간에서의 작업을 지향하고 미술작품이 도시환경이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하며 그 환경적 요소를 작품의 구성요소로 끌어들이므로써 현대인에게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현대 사회의 도시환경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조형물도 환경조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조형물을 중심으로 한 환경조형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적 공간을 중심으로 보다 예술적이고 문

1) 김향미(2009). 환경미술교육의 방향과 내용탐색. 미술교육논총. 23(1), p.271-292.

화적인 환경의 조성을 위해 환경조형이 설치되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조각공원의 조성이 확산되고 있다. 환경조형은 도시의 조형공간 구성을 기본목적으로 설치된 조형물로서, 대중들의 예술적 체험과 정서적 안정을 추구함은 물론 도시미관의 개선은 체계적인 조각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형은 조각이 지니는 순수 예술성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일상생활 공간에서 대중과 소통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공존의 법칙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감상적인 측면의 기능과 공공차원의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도시 경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이 결합되어 사람 및 도시와 공존한다. 즉, 환경조형물은 순수한 시각적 만족만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이 설치된 공간은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내어 자연과 인간이 상호 교류하는 새로운 공간을 생성시키게 된다. 이에 따라 독립적인 개체로서의 조형물, 건축물과 상호작용하는 형식의 조형물 그리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어 상호작용하는 조형물의 형태로 어우러져 현대인의 공동체적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다.

기존의 환경조형이라고 지칭 할 수 있었던 공공조각들은 주로 교회나 고전을 통하여 도상(Iconography)을 주로 종교적, 정치적, 교육적인 목적에 의해 표현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환경조각은 주변 환경에 대한 대중의 반응에 근거하고 있는 현대의 환경조각과는 다른 기능이 있다<sup>2)</sup>. 도시 환경조각은 조각 본래의 공간적, 상징적, 심미적 특성으로 인간의 정서적 환경의 질을 높이며 공간을 의미 있게 형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경조각의 필요성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의 실현을 통해 환경의 예술화를 이룩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보다 안정적이고 아름답게 하며,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룩하는데 있다. 예술은 정신적 생활에 속해있으며, 또 그 생활에 있어서도 예술은 가장 강력한 대리자 중 하나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이다<sup>3)</sup>.

2) 어호선·고웅곤(2013). 이사무 노구치 환경조각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디지털 정책연구, 11(1), p.447-457.  
 3)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1979).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어호선·고웅곤(2013). 위의 논문.

현대에 이르러 조각은 건축과 함께 인공적 환경에서 커다란 부분을 점유하게 되었고 인간의 정신을 순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렇게 조각이 도시환경의 필수적인 구성물로 등장하는 이유는 그 자체의 미적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생활환경은 도시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름답고 쾌적하게 조성된 도시공간은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 및 메마른 정서를 회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

이처럼 조각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구체적인 작품이면서 동시에 조각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공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구성한다. 특히 도시환경에서 구축되는 환경조형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 도시의 미관적인 요소와 결합하며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한다. 이로서 도시환경에서의 조각은 조형적인 의미에서의 단순 미화를 떠나 도시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대 도시 공간 속에서 환경 조각은 인간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며 인간에게 심리적·생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요소이다. 또한 현대사회의 삭막하고 획일화된 인공 환경을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순화시키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런 맥락에서 환경조형은 인간의 도시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도시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도시민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시켜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조형을 사회적 자본의 하나로 이해하고 접근해서 이를 구축하고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재편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사회적 자본은 “친근감이나 상호 인지적 관계가 제도화되거나 혹은 지속적인 연결망 때문에 개인이나 집단이 실제로 혹은 가상적으로 얻게 되는 혜택이나 기회의 총합”<sup>4)</sup>으로서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

4)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생각과 합당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신뢰를 형성하고, 규범을 준수하면서 사회적으로 참여를 함으로 사회적 자본의 가치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가치는 신뢰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것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미래 지향적인 새로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자본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개념인 동시에 또한 문화적인 동기와 제도적인 수단의 차원을 동시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생성되고 존재하는 것이다.

환경조형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이 환경조형을 도시환경에서 시민들이 공유하게 되는 사회적 자본으로 이해할 때 조형물이 가지고 있는 미학적 관점을 벗어나 새로운 가능성과 사회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환경조형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환경조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어떻게 구현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미술교육에 있어서 조형물에 대한 단순감상교육이나 미학적 관점만이 아닌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적 참여와 관찰 나아가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의식과 사회성을 교육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매개로 환경조형의 활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의 대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술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의 사회적 참여와 구성원들의 연대의식과 사회성을 교육하고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적 매개로서 환경조형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로 설정하였다. 먼저 국내외 학술논문, 학위논문을 비롯하여 각종 보고서 및 현황자료에 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조형 및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환경조형 교육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그림 1> 논문의 구성

## II. 이론적 배경

### 1. 환경조형에 대한 이론적 고찰

#### 1) 환경조형의 개념

환경조형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규정되어 사용되기 보다는 관습적으로 사용되었다. 지금까지 환경조형은 도시생활에의 접근이라는 개념으로 시도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환경조형은 도시의 공적공간에 위치하고,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공공조각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환경조형은 공공조각의 개념뿐만 아니라 예술의 내부로부터 발생된 자발적인 여러 상황들도 반영하고 있다. 공적인 의미가 강한 공공성이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은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관적인 요소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근본적인 도시생활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sup>5)</sup> 김석(2011)<sup>6)</sup>은 현대 환경조형과 공공미술의 양가성 연구에서 환경조형은 도시, 자연공간에서 입체조형의 형식을 통해 환경과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서 공공미술은 주로 도시공간속에서 일반 시민과 대중의 공익성·공공성을 고려하여 입체 조형물을 만들거나 미적 표현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공미술은 시대적인 사회변화에 따라 더욱더 공익의 개념이 추가되어 독특한 미술양식으로 자리매김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환경조형과 공공미술은 공통적으로 자연공간·도시공간을 변화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5) Lewis, M., 김문환 역(1975). 예술과 기술. 서울: 을유문화사.

6) 김석(2011). 현대 환경조각과 공공미술의 양가성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12(6), p.85-97.

이러한 현대적 환경조형의 개념은 과거의 환경조형의 개념과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과거, 공적공간에 조성된 공공조각들은 주로 성화나 고전을 통한 공통의 도상을 주로 종교적·정치적·교육적 목적에 의해 표현하는데 반해, 현대의 환경조형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보다 강조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도시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휴식을 제공한다라는 기능적인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 환경 조각이 도시환경에 있어서 중요한 조형물로 인식되는 이유는 조각 자체의 미적 과정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에 대한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예술작품으로서의 환경조형은 조각 작품 본연의 기능인 감상적 의미와 함께 실용적 측면에서인 도시경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심미적 접근으로서 도시의 외적형상을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도시인의 심적 치유제로서 작용한다. 이는 인간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환경조형은 도시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이는 조각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한다. 현대조각은 단순한 모방이나 순간의 표현을 넘어 장고한 인간의 생명과 사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현대조각은 삶의 구체적 모습을 표현하거나 미래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현대인들은 환경조형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작품 속에 담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이나 주위와 연계시키며, 도시생활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조각은 공간에 놓여 있는 공간존재적 미술이며, 입체예술이다. 지각된 그 자체가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조형에서는 공간을 어떻게 형성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환경조형은 주위공간과의 복합적인 관계가 필수 조건이다. 이 때문에 환경조형은 조각가 개인 차원의 예술적 가치만을 반영하기는 어렵다. 도시공간의 조성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의견수렴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서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의 의식과 문제점을 작품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듯 현대사회의 환경조형은 설치미술, 매체미술, 환경미술, 공공미술 등으로 변화·발전하고 있으며, 환경을 반영하여 관람객인 인간과의 소통 또는 대화에 지향점을 두는 총체적 미술로 발전하고 있다.

## 2) 환경조형의 기능 및 특징

### (1) 환경조형의 기능

도시공간에 놓인 오늘날 환경조형은 주위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본연의 기능 외에도 점차 그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환경조형은 순수한 예술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과 조화하고 때로는 환경을 창조하면서 대중과 함께하며 그 독자성과 존재 의의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7)</sup>. 또한 환경조형은 환경개선의 차원이 아닌 대중과 작가의 양방향적인 필연적 요구로서 분열된 개체를 사회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고 소외된 계층 간을 문화적으로 융합시켜준다<sup>8)</sup>

이러한 환경조형의 기능은 크게 공간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실용적인 측면과 조각이 상징하는 심리적인 측면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sup>9)</sup>. 실용적인 측면은 도시의 미적 구성과 관련이 있고, 심리적 측면은 사회구성원과 관련이 있다. 도시의 미적 구성을 강조하는 실용적 측면은 공공성의 측면도 포함하는데 소홍렬(1997)<sup>10)</sup>은 환경조형의 기능을 실용적 측면에서 보다 세분화하여 지표의 역할, 공간의 구획, 시각적 액센트, 특정 용도를 위한 유용한 기능, 공공미술의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심리적 측면은 단순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쾌적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용적 측면과 관련되어 환경조형의 구체적 기능을 잘 설명한다.

7) 어호선·고용근(2013). 앞의 논문.

8) 유성웅(1988).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 대중과 환경조각. 미진사.

9) 박시환(1991). 부산시 환경조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p.285-296.

10) 소홍렬(1997). 도시환경과 동상의 의미 - 서울의 동상조각. 공간, 121(7), p.17-24.

황기원(1978)<sup>11)</sup>은 환경조형의 기능을 실용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을 포괄하여 다음의 일곱 가지로 보다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첫째, 지표로서의 기능이다. 환경조형은 도시 공간 내에서 지표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방향감각을 제공해 주는 이정표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조형은 복잡한 도시의 투시도인 조망에서 하나의 접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 도시민에게 시각적인 방향감각을 제공해 준다. 이것은 시각적으로 구조물의 인식에 있어서 시각집정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가로와 교차지점이나 광장에 설치된 조각, 또는 대형건물에 그려진 도시벽화는 도시 속에서 표식물의 역할을 한다.<sup>12)</sup>

둘째, 공간의 구획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다. 환경조형은 예술작품으로서 시각적 감상기능을 제공하는 한편, 하나의 건축물로서 문의 역할이나 구역의 경계 역할을 제공한다.

셋째, 시각적·심리적 액센트의 역할을 한다. 환경조형은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전체 도시의 형태를 미화하기도 하고 공간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즉, 환경조형은 여러 가지 요소를 결합시키고 다른 시설물들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통일요소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와 반대로 일률적인 공간에 강렬한 대비효과로 현대적인 감각을 창출하는 대비요소로서의 기능을 한다.

넷째, 유용성을 들 수 있다. 이는 실용적 측면에서 환경조형의 기능성을 의미하는 것인데, 도시의 공간에 설치된 가구로서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한 분수, 조명 기기로서의 기능, 벤치 또는 앉는 장소로서의 기능, 시간을 알려주는 조형물, 놀이터로서의 기능 등 다양한 기능성 조형물로서 설치되기도 한다.

다섯째,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이 있다. 환경조형은 보다 호소력 있는 도시공간 속에서 대중들 하여금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환

---

11) 황기원(1978). 인간의 생활환경과 조각. 서울: 공간.

12) 대한국토계획학회(1987), 도시의 계획과 관리. 서울: 집문당.

경조형은 특정한 또는 특정 계층만을 위한 예술작품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회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공공예술로서의 환경조형의 기능은 대중에게 전달효과가 더욱 크다. 이것을 통해 도시공간에서 예술과 문화에 대한 공공 접촉이 활발해지게 된다.

여섯째, 개성 있는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기능을 갖는다. 잘 조성된 환경조형은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수성과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로서 도시공간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일곱째, 환경조형은 시대정신과 대중의 사상을 대변하기도 한다. 환경조형은 문화와 시대적·공간적 상징으로서 대중의 사고나 의식의 방향을 유도하기도 한다. 김영희(2011)<sup>13)</sup>는 3D시뮬레이션 사용에 따른 국내 환경조형의 조형적 변화상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환경의 도입은 조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특히 환경 조각은 전통 조각에서 별도로 독립해야 할 만큼 조형적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작가의식의 변화는 이러한 첨단 디지털 매체의 간섭에 의해서 촉발 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환경조형이 디지털화 되었다는 것은 도구적 수단의 변화나 이전시대의 미학적 가치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의 개념과 존재형식, 작품이 놓일 환경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공간인식을 망라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공간 개념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은 종래의 수동적인 응시 관념의 대상에서 능동적이고 구성(Composition)적인 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은 작품의 창조성이나 완결성보다 환경 및 제반 여건과의 조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가 예술적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환경조형은 사회를 반영한 예술작품으로서 사회성과 예술성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회적 미술인 셈이다.

---

13) 김영희(2011). 3D시뮬레이션 사용에 따른 국내 환경조각의 조형적 변화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1> 환경조형의 기능

| 구 분                 | 세 부 내 용   |
|---------------------|---|
| 지표로서의 기능            | 복잡한 도시생활을 하는 시민들에게 방향감각을 제공해주는 이정표로서의 기능  |
| 공간의 구획을 제한하는 기능     | 하나의 건축물로서 문의 역할이나 구역의 경계 역할을 제공   |
| 시각적·심리적 액센트의 역할     | 무미건조하고 획일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전체 도시의 형태를 미화하기도 하고 공간이 나타내고자 하는 상징성을 강조하는 기능                          |
| 유용성                 | 도시의 공간에 설치된 가구로서 물을 제공해 주기 위한 분수, 조명 기기로서의 기능, 벤치 또는 앉는 장소로서의 기능, 시간을 알려주는 조형물, 놀이터로서의 기능 등 |
| 공공미술로서의 기능          | 보다 호소력 있는 도시공간 속에서 대중들 하여금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개성 있는 도시공간을 형성하는 기능 |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수성과 상징성을 가진 조형물로서 도시공간의 개성을 표현하는 기능  |
| 시대정신과 대중의 사상을 대변    | 문화와 시대적·공간적 상징으로서 대중의 사고나 의식의 방향을 유도  |

출처 : 황기원(1978)<sup>14)</sup>을 바탕으로 연구자 재정리

## (2) 환경조형의 특징

환경조형의 특징은 순수조각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때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환경조형은 무엇보다도 전시실 및 실내를 떠나 도시의 인공공간 속에서 대중과 함께 함으로써, 이미 공공성을 부여받은 도시환경의 한 요소로 존재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때문에 환경조형은 작가의 정신세계

14) 황기원(1978). 앞의 책.



에 대한 표현보다는 도시 공간의 성격과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성격 및 이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대의 환경조형은 융합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환경조형은 현대 미술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여러 장르의 교류와 종합으로서 조각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화, 다변화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환경조형은 다수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공공예술 작품으로서 난해하거나 추상적이며 주관적인 표현을 지양하고, 비교적 객관적이며 직접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거나 혹은 현저히 대조를 이루는 형태이더라도 비교적 알기 쉬운 형태로 조형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비교적 단순하고 힘찬 표현으로 명확한 형태를 취함으로써 대중들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조형이 도시공간의 일부로서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만 한다<sup>15)</sup>. 첫째, 설치환경이 적합해야 한다. 즉, 작품의 주제, 시대성, 유용성 그리고 문화적 허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주제가 적합해야 하는데, 이는 설치될 장소의 특성과 상징성을 고려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 시대성이다. 환경조형은 그 시대의 정신적 가치관이나 개념, 문화, 사상, 종교관 등이 적절히 융화되어야 한다. 넷째, 유용성이다. 환경조형에는 미적 고양 이외에도 기능이나 역할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회문화적인 허용성이다. 설치된 조각이 대중에 의해 받아들여져야 그 환경에 적합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의 환경조형은 소재와 내용이 다양해지기도 하는데 환경조형의 설치로 인해 그 공간은 공적인 문화공간으로 변모하여 휴식공간으로서의 도시환경적 특성도 가진다.

---

15) 안미정(1988). 도시환경과 조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환경조형의 영역

환경조형은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며, 지각적·경험적 측면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한다. 설립 목적에 따라서는 기념조각과 기능조각으로 분류하며, 지각적·경험적 측면에 따라서는 건축과 같은 조각, 건축에 소속된 조각, 대상물로서의 조각 등으로 분류한다.

#### (1) 목적에 따른 분류

먼저 목적에 따라 그 영역을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과거부터 많이 사용된 기념조각이다. 특정 인물, 사건 또는 시대를 기념하기 위해 예술적으로 표현한 조각물을 의미하는 기념조각은 시대감정이나 의식의 산물이며 민족성이나 종교적 상징,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다.

둘째는 기능조각으로서 현대 도시공간이 요구하는 유용성을 지닌 조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표식물로서의 기능, 가구로서의 기능, 수상조각으로서의 기능,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 실용성을 가진 기능이 부여된다.

표식물로서 환경조형은 복잡한 도시에 강한 액센트가 되대도 하고 리듬을 주어 주위 환경과 조화시킨다. 환경조형은 사람들이 도시생활에서 지리를 알아내는 중요한 기능, 그리고 위치나 거리를 가늠하는 표식물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그림 1)은 뉴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식물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뉴욕항으로 들어오는 허드슨 강 입구의 리버티 섬(Liberty Island)에 서 있는 이 여신상은 1886년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에서 우호증진을 위한 선물로 준 것이다. 정식 명칭은 ‘세계를 비치는 자유(Liberty Enlightening the World)’지만 통상 자유의 여신상으로 알려져 있다. 1875년에 만들기 시작하여 1884년에 완성되었고, 잠시 프랑스 파리에 서 있다가 1885년 배를 통해 미국으로 이송되어 1886년에 설치되었다.



<그림 2> 자유의 여신상 (프레데리크-오귀스트 바르톨디, 1984)

도시 가구로서의 환경조형은 도심에서의 편안하고 휴식하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해 준다. 도시 공간 내에서 벤치, 조명, 테이블 등의 역할과 기능을 제공하는 환경조형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림 2)는 대구의 MBC 마당에 설치된 환경조형으로서 도심 내에서의 가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형의자의 한 사례이다.



(출처 : <http://cafe.naver.com/1004theme/2010>)

### <그림 3> 조형의자 사례

수상조각의 기능은 분수 조각이 대표적이다. 분수조각은 시각과 촉각에서의 쾌적함,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할 수 있는 환경조형이다. 분수조각은 대중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도심 내에서 청량과 신선함 그리고 역동성을 느끼게 해준다.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분수 기능과 음향, 빛, 영상을 혼합함으로써의 도심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3)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시 소재 메가폴리스몰 광자에 조형된 분수인데, 다양한 조명기술과의 결합을 통하여 환상적인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그림 4> 경기도 화성 메타폴리스몰 분수대

놀이공간으로서의 기능은 어린이들의 놀이도구로서의 환경조형의 활용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그네, 미끄럼틀, 모래터 등이 있다. 종래의 놀이조각이 아동들만을 위한 순수한 것이었는데 반해, 최근에는 온 가족 또는 일반 대중이 즐길 수 있는 오락공원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그림 4)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틀 조형물을 확인할 수 있다.

실용성을 가진 기능조각은 실외에서 사용하는 것과 실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실외에서의 대표적인 유형은 건물의 외부 장식과 칸막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실내에서의 유형으로는 가구 종류인, 의자, 탁자, TV나 오디오와

장식장, 화장품을 수납하는 공간 등과 내부장식을 치장하는 벽과 장식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 경북일보, 2012. 7. 6.)

<그림 5> 다양한 형태의 미끄럼틀 조형물

## (2) 지각적·경험적 측면의 분류

다음으로 지각적·경험적 측면에 따른 분류<sup>16)</sup>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과 같은 조각(Sculpture as Architecture)이 있다. 이것은 조각 자체

16) Robinette, A.(1976). Outdoor sculpture, New York: Whitney Library of design.

가 건축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 또는 건축이 조각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로부터 건축과 조각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으며, 건축과 조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인간에게 제시하여 왔다. 따라서 건축과 같은 조각은 사람이 살거나 작업으로 쓸 수 있는 환경적 구조, 닫혀진 조각적 볼륨이 내·외부로 보여 지는 조각이다.

둘째, 건축에 소속된 조각(Sculpture in Architecture)으로서, 건축의 구성부분으로 결합하여 건축의 기능을 암시함과 동시에 장식적으로도 기여하는 조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조각은 건물의 내부나 외부 벽에 부착되어 있는 조각 작품이며, 건축물 자체의 일부분으로 미적 기능과 건축적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따라서 이것은 독자적인 대상도 아니며 건축물도 아니다. 이것은 건축 형태가 조각의 예술적 개념에 통합된 것처럼 건축과 디자인의 통합된 일부이다.

셋째, 대상물로서의 조각(Sculpture as Object)이 있다. 이것은 구축된 조건이 없으며, 건물과의 관계를 떠나서 도시 공간 속에 자립적이며 미적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되는 자유조각 또는 설립조각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 미적인 가치에 의해 평가되는 단일 작품이다. 이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는 주변에 흔히 접하는 조각공원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도시 공간에 설치된 환경조형물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2. 환경조형의 형성과 지원제도

### 1) 환경조형의 형성

#### (1) 세계 환경조형의 형성과정과 주요 작품

환경조형의 기원은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조형은 원시조각을 시작으로 고대조각, 르네상스 조각, 근대조각, 현대조각의 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원시시대의 환경조형은 자연환경에 기반을 두고 조성되었는데, 주로 동굴 주변, 집회장 주변 등에 돌을 쌓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당시의 환경조형은 자연에 대한 숭배와 기념, 영혼 불멸의 영속화를 추구하는 상징적 형태의 기념조각이 주로 설립되었다.

당시에는 인공적 조형방법에 의한 표현보다는 언덕의 굴곡이나 나무, 바위 등을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내적 반응을 창작에 옮기는 형태가 환경조형이 조성되었다<sup>17)</sup>. 이처럼 생활환경에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는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공간을 구성하는 원리는 오늘날의 환경조형의 본질적 개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수렵인이 표현한 선각들은 장식의 목적 보다는 사냥의 큰 수확을 기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각의 제작 의도는 생명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사냥을 하기 위한 주술행위의 성격이 강하였다. 따라서 예술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또한 생식행위와 결부되어지는 조각은 돌이나 점토, 뼈로 만들어졌으며 여성의 육체 특징인 둔부와 유방 등의 부분이 강조되는 조각도 보이는데, 이는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sup>18)</sup>

프랑스 도르도뉴의 로셀(Laussel) 동굴에서 발견된 구석기시대의 암굴부조

17) Robinette, A.(1976) 앞의 책.

18) Herbert, R. 이희숙 역(1984).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역. 서울 : 열화당.



인 비너스의 경우도 당시의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그림 6> 로셀의 비너스

원시시대의 환경조형들은 주로 야외의 표지석(monument)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형적으로는 다소 떨어지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의 매개체로서 공공의 목적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고대시대의 조각이다. 고대시대의 조각은 신을 위한 봉납과 기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거석을 단위로 세운 선돌 혹은 지석을 세워 그 위에 수평으로 큰 돌을 얹은 고인돌 등이 이 시기 환경조형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그림 7> 강화 부근리 고인돌

고대 수메르인들은 그들의 신전 입구에 사자의 머리를 가진 독수리와 같은 조상을 장식하여 가뭄 뒤에 비를 내리도록 기원하였다. 또 이집트인들은 끝없는 장례행렬을 조각하여 사자를 기념하기도 하였다.

이집트의 스팅크스상과 미이라 상, 아누비스상은 당시 이집트의 대표적인 환경조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왕과 같은 절대권력자에 대한 숭배와 영혼불멸에 대한 기원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그림 8> 이집트의 스피핑크스

그리고 그리스는 이집트문화의 영향을 받아 신전조각이나 기념비적인 조각품을 만들었다. 그리스 조각의 초기 양식은 엄숙하고 명상적인 신상조각을 만들었으며 원숙한 고전양식으로 볼 때 가장 균형을 가진 종교 조형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 조각의 최고의 산물로는 파르테논 신전을 꼽을 수 있다. 그리스 조형예술의 특색은 사실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상적인 미의 추구에 힘썼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복잡한 도시와 섬으로 구성된 그들 사회의 혼란과 복잡을 극복하기 위해 통일된 사상적 형태를 창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건축과 조각은 수학적인 질서를 가지는 통일된 조형으로 나타난다.<sup>19)</sup>

---

19) 김윤수(1978). 미술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그림 9>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 조각의 중흥기는 헬레니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사실적인 조각품의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데, 신전 곳곳에 세워져 있는 신전 석상들과 조형벽화 등이 대표적인 조형물이다. 이 당시는 통치자의 신분, 지위 명예를 작품에 나타내었고, 신들과의 동격을 암시하기도 했고, 초상조각과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스의 여러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한 많은 작품들과 석상이 있는데 그리스인들은 그들의 신을 인간화시키기는 하였지만 그들의 신을 숭배하였고, 신에 대한 선물로써, 신전과 그의 주변의 조각 작품을 제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리스 시대의 조각은 단지 건축의 예속물로서 존재하였고 하나의 장식에 불과했으며,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로마시대의 조각은 그리스 조각과 큰 차이가 없다. 로마시대에는 전쟁의 승리와 개인의 공덕을 기록하기 위해 권력자와 정복자들의 초상조각을 비롯

한 야외 조각이 매우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Arch of Constantinian)<sup>20</sup>,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원주(Trajan' Column)와 같은 기념비적 작품이 대표적이다. 로마시대 조각이 특징은 조각상을 시점이 높은 기단위에 설치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왕, 영웅, 장군 등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한 전형적인 조각의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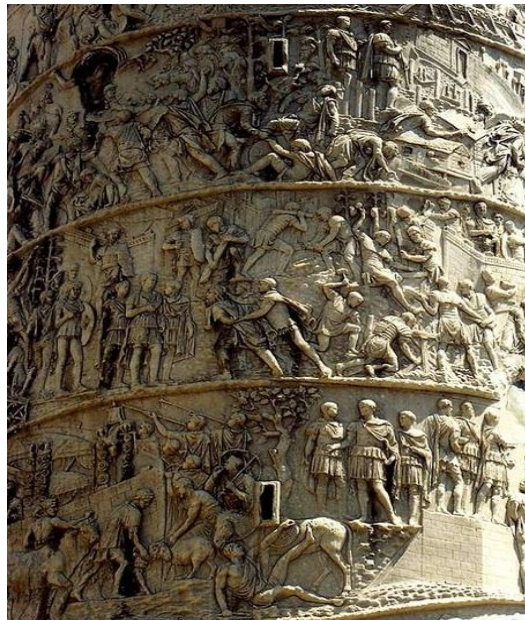


<그림 10> 로마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

20) 로마의 포룸 로마눔 근처에 있는 기념문으로 A.D. 312년 콘스탄티누스 1세의 서로마 통일을 기념하여 원로원이 건조하여 315년에 봉헌하였다. 높이 21m, 너비 25.7m, 안길이 7.4m로, 본체대는 백대리석, 아치 등의 일부에는 색채석을 사용하였다. 정문 기둥 위에 8개의 조상이나 벽면 부조 등에는 전 시대의 것을 다른 건물에서 옮겨 그대로 사용하였다. 티투스 개선문,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개선문 등과 같은 종류의 로마 모뉴먼트에 비하여 고전 문화의 우아함을 지닌 작품이다. (네이버 테마 백과)



<그림 11> 트라야아누스 황제 원주 전경



<그림 12> 트라야아누스 원주 부분

르네상스 시대는 조각이 비로소 건축으로부터 독립된 시기이다. 당시의 조각은 건축의 일부가 아닌 종교적, 문화적, 군사적 내용을 담은 독립된 조형물로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해부학에 바탕을 둔 인간의 영혼을 담은 인물상 중심의 야외조각(Outdoor Sculpture)이 나타나게 되었고, 도시의 형태를 띤 공적 공간인 광장을 중심으로 그 영역을 넓히게 된다. 이 시대 또한 건축의 장식은 매우 중요시 되었으나 중세건축에서와 같은 조각의 부수적인 모습이 아니라 순수한 그 자체가 작품이 되었고, 독립적 개체가 되었던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16세기 미켈란젤로(Michelangelo, 1475-1564)라고 할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1501년 르네상스 최초의 공공기념적 상징물인 인간주의적 정신을 표현한 다비드상을 제작한다. 이 작품은 환경조형이 과거의 절대권력에 대한 존경과 경의의 표현보다는 사회·공공성의 개념이 오히려 강조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시민계급의 발달로 말미암아 시민들을 위한 문예를 장려되었으며, 광장은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따라서 환경조형은 공공공간의 장식물로서, 그리고 특별한 장소의 표식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그림 13> 미켈란젤로 '다비드상'

광장은 바로크(Baroque) 시대에 더욱 활발하게 조성되었다. 바로크시대에는 막대한 부와 절대적 왕권을 배경으로 대도시가 형성되었으며, 시민의 휴식성을 위한 광장에 실용성과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식적인 분수가 전성기를 이룬다. 당시에 조성된 분수조각 중에서 특히 나보나(Navona) 광장에 있는 베르니니(G. L. Bernini)의 '네 강의 분수(Fountain of the four rivers)'가 유명하다.





<그림 14> 베르니니 ‘네 강의 분수’

하지만 바로크(Baroque) 시대의 조각은 후기로 갈수록 장식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 다시 조각이 건축으로 종속되어 독립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바로크 시대에 많이 제작된 초상조각도 소위 기념비적인 목적보다도 건축을 장식하고 정원을 장식하기 위한 것이었다.

근대조각은 19세기 이후의 조각을 지칭한다. 당시에는 귀족적인 정원에 대한 흥미가 점차 사라지고, 공적인 정원이나 공원이 일반 대중에게 관심을 끌게 되면서 민주적인 대중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대중을 위한 예술품들이 등장한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러 조각계에 Auguste Rodin(1840-1971)이 등장함으로써 근대조각은 새로운 진전을 이룩하게 되었다. 그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조각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다. 표면의 처리를 말끔하게 다루어 완성도만을 중시하던 당시의 관념적인 양식에 벗어나서 인체의 자유로운 동작

의 순간적인 미를 포착하여 힘찬 생동감을 주었다. 또한 로댕의 작품은 조각이 건축을 장식하던 장식적인 것에서, 또는 건축의 부속물과 같은 처지에서 해방되어 독자적인 영역으로 확립됨으로써 추상조각으로의 계기를 마련해 준 발판이 되었다.



<그림 15> 로댕의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은 1880년 프랑스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새로 지을 장식미술관의 정문 조각으로서 제작되었다. 당초 지옥의 문은 청동문으로 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계획이 취소 된 후 로댕은 석고 버전만 공개한 후 미

완성으로 남긴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지옥의 문은 단체의 신곡 지옥편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념비적 동상들의 설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건축과 조각은 다른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당시 청동주조술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청동과 대리석 조각이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이런 현상은 새로운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위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개된 이 같은 움직임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sup>21)</sup>

20세기 이후의 조각을 일반적으로 현대조각으로 분류한다.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주의적 전통양식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추상화 되어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리고 조각은 비로소 건축으로 완전히 독립되어 별개의 목적과 기능을 갖는 조형물로 인식되었다.

20세기는 기계 문명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관심을 보이며 유럽에서는 미래파 조각의 기술선언을 발표하였다. 미래파의 선구적 인물인 움베르토 보치오니(Uccioni, 1882-1916)는 공간에 있어서 연속되는 단일형태의 작품을 통해 공간성에 시간성을 도입하였다. 이는 조각에도 동시성을 표현함을 의미한다. 미래파를 계기로 환경조형은 기계문명의 산물인 속도와 역동성, 도시와 조명, 소음 등에 새로운 미적가치를 부여하여 새로운 조형적 표현을 추구하였다.

---

21) 강철기(1991). 환경과 조각. 서울: 대우.



<그림 16> 움베르토 보치오니 '공간 속에서 연속되는 특이한 형태'

한편, 브랑쿠시(C. Brancusi, 1876-1957)는 공간 개념의 재해석과 추상조각의 탄생을 이끌어 내었다. 그는 조각이 실내전시장을 떠나 자연 공간, 인위적 공간에서 숨쉬게 하였다. 즉, 보치오니가 조각을 시간의 도입과 열려진 공간으로 외부에서 내부로 작품을 추구하였다면, 브랑쿠시는 반대로 내부에서 외부로 단순화시켜 나갔다. 그의 작품 ‘무한주’, ‘키스의 문’, ‘침묵의 둥근 큰 탁자’ 등은 환경과 조각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그림 17> 콘스탄틴 브랑쿠시 ‘입맞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조각은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구성주의는 새로운 물질적 소재의 개발을 통해 환경조형의 공간 구성을 표현하는데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해주었다. 전통적인 조각 재료인 청동, 대리석, 석조, 목조와 더불어 합성수지, 유리, 새로운 금속, 염직물, 오브제 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법이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데이비드 스미스(David Smith: 1906-1965), 호세 데 리베라(Jose de rivera: 1886-1957) 등의 미국의 예술가들은 전통적인 재현주의에서 벗어나 추상표현주의와 구성주의 같은 형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의 현대조각의 특징은 건축과 조경의 관계, 환경조형과 환경의 관계가 보다 밀접해졌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도시환경의 공간구조에 조각이 일익을 담당하면서 도시공간 구성에서 환경조형의 중요성 강조되었고, 환경조형의 심미적 비중이 더욱 중요시 되었다. 이와 아울러 여러 가지 공간의 특성에 힘입어 각기 다른 독자적인 장소성을 향유하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 다양한 표현을 구사하게 되었다.

## (2) 우리나라 환경조형의 발전과정

우리나라의 환경조형은 한반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발생되었고, 환경조형 속에는 한민족의 정신과 종교, 이념이 복합적으로 융합되어 있다.

원시시대의 대표적인 환경조형으로는 거석 기념물, 이정표, 장승 등을 들 수 있다. 원시시대에는 환경조형은 그 시대의 강력한 권력이나 상위 계층들을 위한 사후세계에 대한 보답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삼국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옥외불상 등이 많이 나타난다. 이외에도 고분과 탑, 기념비 등은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환경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8> 신라시대 '다보탑'



<그림 19> 백제 무녕왕릉 석수

근대 한국 조각의 형성은 김복진(1901-1940)의 등장과 더불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동경미술학교에서 수학한 그는 작품 활동과 함께 토월미술연구회, YMCA 등을 통한 사회 활동으로 이 땅에 근대적 조각이 뿌리내리는데 공헌하였다

1952년 이후에는 동상건립 운동이 계속되면서 주로 신고전주의적인 기념상 건립이 환경조형의 주를 이루게 되었다.<sup>22)</sup>

## 2) 환경조형 지원관련 제도

### (1) 한국의 문화예술진흥법

우리 헌법은 문화관련 조항으로 여러 가지를 두고 있다. 일단 헌법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라는 표현과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한 제9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하여 국가의 문화책임을 규정한 제31조 5항, '...민족문화의 발전 및 조국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등의 대통령의 취임선서규정(제69조) 등이다.

구체적인 문화산업의 진흥은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문화예술진흥법의 제정 취지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국가에서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민족문화의 중흥을 이룩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을 마련한 것이다<sup>23)</sup>.

22) 이경성(1974). 한국 근대미술 연구. 서울: 동화출판사.

23)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이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그 환경여건을 개선하고 민족문화의 중흥을 이룩하려는 것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이나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②문화예술진흥에 대한 중요시책의 심의기구로 국무총리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③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



문화예술진흥법은 1971년 제정 이후 1995년 전면개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 십여 차례가 넘는 개정을 해왔다. 더욱이 2000년대 들어서는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문화산업 진흥에까지 국가의 일정 역할을 확대하기도 하였다<sup>24)</sup>.

도시환경 조형물은 이러한 문화예술진흥법의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와 관련이 있다. 2011년 개정된 제9조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여 도시환경조형물의 설치를 제도화 하고 있다.

한편 법 제 9조 3항과 4항의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동법시행령에서 보면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판매시설, 향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 운수시설,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의 경우 시(자치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 지역에 소재

---

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④기금의 모금·시상제도 및 문화의 달을 설정하는 근거를 마련함.

⑤학교와 직장에는 학생·직원 기타 종업원으로 구성하는 1개 이상의 예술활동단체를 두도록 권장함.

24) 서순복(2007).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 18, p.69-100.

하는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이상 1천분의 7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지역에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은 일괄적으로 건축비용의 1백분의 1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sup>25)</sup>.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도시공간을 위한 미술품 설치제도가 마련되면서 197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조각품 혹은 조형물이 야외공간에 설치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환경조형은 급속도로 개념이 세분화되며 공공성에 대한 관심 역시 증폭되고, 80년대를 기준으로 심미적 특성의 환경조형과 공익을 위한 공공미술은 양방향으로 확장되었는데 본격적으로 조각은 미술관을 벗어나 공공장소에서 일반대중과 접하게 되었다<sup>26)</sup>.

## (2) 미국의 환경조형지원

미국의 환경조형 지원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공시설청 예술건축계획으로서 중앙정부의 공공시설청(GSA)의 예술건축계획(Art in Architecture)에 의해 운영되는 환경조형의 구매 및 설치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공공성격의 환경조형 지원이다.

먼저 공공시설청 예술건축계획<sup>27)</sup> 프로그램은 70년대 초부터 예술가에게 새

2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부록 2.

26) 김석(2011). 앞의 논문.

27) 이철재(2008).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따른 환경조형물의 실태조사 연구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로운 연방정부의 건물의 건축 설계 및 예술 작품의 제작을 촉하고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수리 또는 개축 중인 건물 및 당초 예술품 설치계획이 있었으나 미설치된 연방정부의 건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현재 135개의 주, 카운티, 시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있으며, 공공건물, 공공건설 위주로 Art in Architecture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자체단체도 있다.

주요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국립예술진흥기금(NEA)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으로 볼 수 있다. 1965년 만들어진 연방기관인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는 독자적인 연방기관으로 미국의 예술 및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회로부터 예산을 받는 NEA는 예술가들에게 기금을 지원하고 그 중 40%는 각 주와 예술기관에 할당하지만 NEA 외에 NEH,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기타 공공기관 지원의 총 규모는 60억달러 규모로 미국 전체 문화 예술단체 수입의 5%에 불과하고 민간을 포함하는 전체 지원규모의 45%에 불과하다<sup>28)</sup>. 민간이 지불한 후원금의 총액으로 1956년에는 대략 70억불이었으며 1985년에는 660억불을 넘어섰다. 1985년도의 총액의 약3%인 18억불의 예술분야의 후원기금으로 사용되었다. 이 금액은 연방이나 주정부와 법인제나 사설재단이 지원하는 후원금을 합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근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관심이 그 나라의 문화를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좋은 예이다.

미국은 1917년에 일정자격을 갖춘 민간미술관 및 공공미술관에 기증하는 미술품의 평가액만큼 세금을 공제해주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이 법안이 통과된 직후에 미국에는 200여 개의 미술관이 새로 생기는 등 미술 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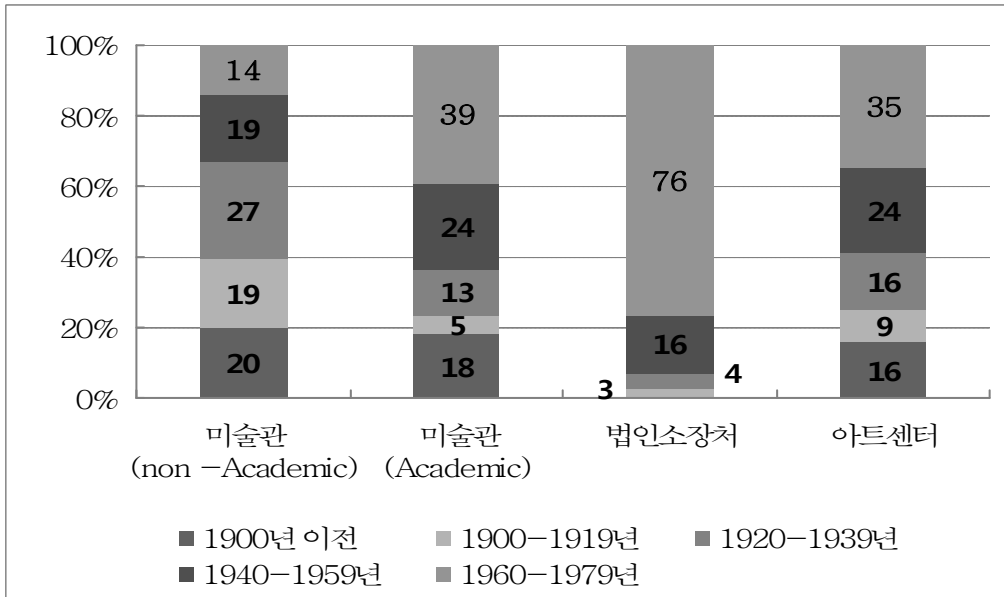
1975년에서 1985년 사이 미국의 각 기업에서 지원한 후원금은 그 전의 10

---

28)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년 동안과 비교하여 거의 3배 이상이 증가했다. 여기서 자선의 목적으로 지원한 기금의 증가액수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그들이 번 순수이익의 규모와 비슷하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면 후원금도 많아지고 이익이 떨어지면 후원금도 떨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큰 폭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미국 기업체의 문화예술 후원의 역사는 이미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예로서 1920년대부터 30년대까지의 뉴욕 카네기 그룹은 1940년대 이전의 미술문화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했다. 이 카네기 그룹은 특히 1930년 경제대공황 시기에도 41만7천 달러를 후원했으며, 1941년까지 135만달러를 기부했다. 카네기 그룹이 지원한 미술문화는 특히 미술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특히 20세기의 미국미술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미술사학자들과 미술관 관장들은 그들의 대학원 학생시절 카네기그룹이 제공하는 연구비를 받았으며, 미술교육용의 서적과 사진, 그리고 슬라이드를 302개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분배해 주었다.



출처: 정영목(1993).

<그림 20> 미술 전시기관 증가추이(1900-1979) (단위 : %)

<그림 20>은 뉴욕시를 제외한 전 미국의 1979년까지 미술전시기관의 증가추이를 나타낸 것인데 총 749개의 전시기관 중 124개의 non-Academic 미술관의 경우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지만 124개의 Academic 미술관의 경우 1960년 이후 신설된 것이 39%이며 67개의 법인 소장처는 1960년 이후 76%, 446개의 아트센터의 경우 35%가 1960년 이후 신설되었다<sup>29)</sup> 이러한 상황은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비영리기관의 후원 증가와 세제정책의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 법안은 레이건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1986년 폐기한 적이 있었고 감세혜택의 축소는 미술품의 기증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했다. 그 결과 미술시장의 침체와 급격한 미술 기증 하락세에 대한 많은 보고와 논쟁과 여론조사가 있었으며 이런 과정과 청문회를 거쳐 미술품기증에 대한 조세제도는 1990년 법개정(OBRA 1990 Amendments to the Tax Code)을 통하여 1986년 이전

29) 정영목(1993). 미국의 미술사와 문화정책 : 20 세기 미술문화에 나타난 미국적 특성과 성격. 미술사학 7, p.63-83.

으로 복원되었다<sup>30)</sup>.

미국의 공공미술품 지원 제도의 시행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작가선정위원회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공공미술 코디네이터의 기획조정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과정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계약은 건축주와 미술가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조항을 포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예술 작품에 대한 비용 지불 계획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미술가가 제작을 전담토록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가가 설치의 책임을 지도록 하기도 한다. 보존과 관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건축주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존관리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관리한다. 교육 홍보의 경우에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경우 또는 완료된 후에 각종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용 자료를 제작하거나 이벤트를 행사를 기획하여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 (3) 프랑스의 1% 법과 DRAC<sup>31)</sup>

프랑스의 공공미술품 지원제도의 시행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작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작가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으며, 조형예술자문관의 기획 및 조정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공공미술 코디네이터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심의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미술장식비용의 금액에 따라 심의기관이 달리 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 문화부를 비롯한 6개 부처에서는 조형예술자문관, 지역위원회, 장식기획국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

30) 이광재(200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발의 자료. 국회 미술관 및 박물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31) 진인혜(2007).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 p.304-324.

예술성을 중심으로 심의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계약단계에서 예술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계약은 건축가와 미술가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조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정책은 3개의 시기로 구분되는데 먼저 1959년 2월 3일, 드골 대통령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수행되던 문화행정 업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문화부를 창설하고, 그 권한을 1959년부터 1969년까지 전적으로 앙드레 말로에게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앙드레 말로는 드골 대통령의 전9폭적인 신임을 토대로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한 문화정책을 펼쳤다. 말로가 내세운 문화정책의 골자는 “문화의 민주화démocratisation culturelle”였는데, “문화의 민주화”란 모든 사람에게 문화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인 평등을 보장하여 누구나 똑같이 문화자산을 접할 수 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화정책의 관점에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문화자산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예술작품과의 만남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는 그를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말로는 두 가지 정책에 집중한다. 하나는 모든 국민이 문화적 작품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혜택을 신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1959년 7월 24일의 칙령에 나타난다.

문화부는 프랑스를 비롯해 인류의 주요 작품을 최대한 많은 프랑스인들이 접하게 하고, 우리의 문화적 자산에 광범위한 지원을 하며 그것을 풍요롭게 하는 정신과 예술작품의 창작을 촉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sup>32)</sup>

1959년 이전에는 교육부가 문화담당업무를 수행했지만 1959년 문화부가 창설된 이래 보조금과 전시회를 위한 재정지원의 형태로 행해져 왔으며 또한 중앙정부가 직접 주문제작하고 구입하는 정책도 아울러 시행되고 있다.

정부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술의 전 부분에 걸쳐 정

---

32) Journal Officiel(1959). décret N.59-889 ; 진인혜(2007). 위의논문 재인용.

책은 대체로 균형적으로 유지되는 데 주목할 것은 1%법이다.

1951년 3월 공포된 일명 1%법은 공공건물의 신축과 재건축 및 확대사업에서 1%를 현대예술창작을 위해 배정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1983년부터 기초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되었다. 이에 공공건물의 1%는 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제도를 통해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200건 이상의 현대미술작품이 창작되어 국가에 의해 구입되었다.

중앙정부와 함께 예술지원의 또 하나의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문화활동국(DRAC: Directions régionales des affaires culturelles)은 1977년부터 문화부와 네트워크를 이루는 전 지역에 파견된 문화부의 직속 행정기구이다. 1983년 시작된 프랑스의 지방자치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며, 1992년 2월 6일 법에 의해 지역분권화 차원에서 운영되는 지역별문화예술진흥부서는 현재 알자스, 브르타뉴 등 총 28개 지역에 설치되어있다. 이들 지역별문화예술진흥부서는 중앙 문화부의 정책결정 내용을 각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현지화 된 정책으로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두 번째 시기는 자크 뒤아멜이 주도한 시기로 자크 뒤아멜은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문화부장관 직을 수행했지만, 1970년대의 장관들 중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면서 문화정책의 영역을 넓히고 문화에 대한 개념을 새로이 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뒤아멜의 문화정책 개념은 1971년 12월 “문화발전 이사회”를 설치할 때 행한 연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뒤아멜은 문화 발전이라는 개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의를 내린다.

첫 번째 정의는 문화부를 창설하는 1959년의 칙령에서 앙드레 말로가 문화부의 임무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다. 즉 “인류의 주요 작품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게 하는 것”이다. 뒤아멜은 이와 같은 임무는 고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서, 말로가 이룩한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고 그의 업적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활동이 불충분했다는 것이다. 말로의 정책은 박물관이나



전시회에 가는 횟수가 양적으로 많아지는 통계 수치에 의해 목적을 달성했다고 믿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다.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두 배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대부분의 대중에게 문화는 낮은 것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화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두 번째 정의는 생활조건, 노동조건, 교통수단과 여가의 조건을 개선하고, 자발적이고 대중적인 창작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뒤아멜은 말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최대한 많은 수의 사람에게”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문화”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번째 정의는 그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그리하여 국민 모두에게 초보적인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공공 건축, 디자인, 자연 환경, 매스 미디어, 광고 등도 문화의 영역에 포함된다. 즉 문화 발전을 위한 진정한 문화정책은 단지 예술작품을 제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 자체에 문화를 삽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뒤아멜이 내린 세 번째 정의는 창작을 촉진하고 그에 대한 발전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문화가 물려받은 유산의 단순한 관리에 머물지 않고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가장 대담하고 예기치 못한 문화적 추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뒤아멜은 이것 없이는 진정한 문화 발전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단언한다.

제3시기의 문화정책은 1981-1986년과 1988-1993년 문화부 장관을 한 자크 랑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는 창작과 문화의 지방 분산화를 추구했는데, 1959년의 칙령을 대신하는 1982년 5월 10일의 칙령에서 그 취지가 나타난다.

문화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프랑스 국민이 발명과 창조의 능력을 계발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표현하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 또는 여러 사회 그룹의 문화 유산을 공동체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보존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여러 문화와의 자유로운 교류 가운데 프랑스 예술과 문화의 선양에 기여하는 것이다.<sup>33)</sup>

이러한 취지는 정책으로 연결되었는바 미술 분야의 지원정책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가의 전향적인 지원이 드러난다.

1982년에 국립미술센터(CNAP)가 문화부 미술국에 해당되는 미술위원회의 산하로 창설되었는데, 이것은 국가를 위한 미술작품의 제작위촉과 구매업무를 담당할 뿐 아니라 미술 영역을 대폭 확대하여 회화와 조각, 사진, 만화, 비디오, 가구, 섬유, 패션, 실내장식 등 모든 미술 장르를 진흥시키는 과업을 관장하게 되었다

국립미술센터는 몇 개의 기금을 관리한다. 첫째는 국립현대미술기금 (FNAC : Fo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으로서 어느 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에 제한하지 않고 작품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며, 또 구입작품들은 정부청사와 해외 대사관 건물 등에 임시로 부착되거나 박물관에 전시 또는 보관되며, 외부전시를 위하여 대출되기도 한다.

현대미술지역기금(FRAC:Fonds Regional d'Art Comtemporian) 은 지역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금으로서 구입미술품 중 약 30 %는 화상으로부터,, 그리고 약 58 %는 미술가로부터 직접 구입하는데, 특히 젊은 작가의 작품들을 구입하는데 사용된다.

둘째는 창작촉진기금 (FIACRE) 으로서 훈련·연구·실험활동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역 차원에서 창작을 촉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는 기금이다. 이 밖에도 공예지원기금과 산업창작기금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이는 문화진흥의 초창기 지원정책이 발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1951년 이래 중앙정부는 신설되는 초중고대학 건물에 회화, 조소, 도자기, 모자이크, 벽걸이, 착색유리창 등으로 장식할 수 있도록 미술인들에게 작품제작을 위촉하고 있다. 이는 소위 1% 법에 따라 건물이 완전히 정부예산으로 신축되는

---

33)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2006, 20쪽 ; 진인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p.17 재인용.

경우에 총건축비용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술작품 장식비로 지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건물 신축비의 일부만 정부가 재정 지원할 경우에도 정부총지원금의 1%를 예술작품 장식비로 지출해야 한다. 1981년에는 이 법률이 모든 정부 건물로 확대되었으며 1983년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었다. 1% 법은 전반적으로 예술작품의 수준을 높이고 보다 많은 미술인들의 참여를 유도하였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셋째는 공단지원기금으로서 공원, 교회, 철도역, 항만, 도로 등 공공장소들에 예술작품을 건립하거나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금이다.

한편 2003년 기준으로 프랑스는 문화부 예산 2,469백만 유로이외에도 각종 중앙부처의 문화관련 예산 3,732백만 유로로 프랑스 중앙정부 전체예산의 2%를 상회하는 6,228백만 유로가 지원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경우도 일정예산이 지원되는데 파리의 경우 지자체 예산의 2.96%가 문화부분으로 지출되었다.<sup>34)</sup>

이러한 한국·미국·프랑스에서 환경조형 관련 정책의 차이를 보면 한국은 조형물에 대해 한정적으로 지원하며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지원이 국가로 부터의 지원이라는 단일체계인데 반해, 미국과 프랑스는 예술지원이라는 포괄적 지원의 하나로서 환경조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정부와 비영리 재단 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

---

34)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3). 주요외국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p.182-185.

<표 2> 한국·미국·프랑스에서 환경조형 관련 정책의 차이

| 구분    | 한국             | 미국                | 프랑스                 |
|-------|----------------|-------------------|---------------------|
| 범위    | 조형물에 대한 한정적 지원 | 예술지원의 하부 영역으로서 지원 |                     |
| 지원 주체 | 정부             | 비영리 재단과 정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원화된 지원 |

### 3. 사회적 자본의 이론적 고찰

####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사회적 자본이란 전통적 의미의 ‘자본’ 개념을 확대시킨 것으로서, 19세기 사회학분야에서 개인의 성공과 실패, 개인의 목적달성 수단인 ‘사회적 연결망’이란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sup>35)</sup> ‘전통적인 자본’은 모두 물리적인 형태(Physical capital)로 존재하는 반면, 새로운 형태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은 반드시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이라는 용어는 Hanifan(1961)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역설하였다. 학문적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학자는 Loury(1977)이다.<sup>36)</sup> 이후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는 Bourdieu(1986), Coleman(1988), Putnam(1993)<sup>37)</sup> 등의 연구를 계기로 크게 활성화되었다.

35) 김일태(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삼우사.

36) 김성태(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7) Putnam, Robert D(1993). 앞의 책.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Bourdieu(1986)은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인 네트워크, 상호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 상호간에 알고 지내는 사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관계의 연결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이다. 그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계급불평등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이에 반해서 Coleman(1988)은 사회적 자본을 단일한 실체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통해 사회적자본의 형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는 사회적 자본을 한 사람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주어진 구조에 속하는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의 유도를 촉진하며 다른 형태의 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적이며 공동의 어려운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따라서 하나의 계급이 다른 계급과의 관계에서 또는 한 개인이나 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의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동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자원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간의 신뢰를 통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사회관계 속에 스며있는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규범과 제재를 통해 공익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거나 제약하는 요소를 적용한다<sup>38)</sup>.

오늘날 사회적 자본을 공공정책연구에서 주류 담론으로 올려놓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학자는 Putnam(1993)<sup>39)</sup>이다. 그는 사회적자본이 민주적 제도의 맥락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자본의 개념을 시민사회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는 사회적 자본을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라고 보았다. 즉, 자발적 시민

---

38) 최종덕(2007). 사회적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p.135-161.

39) Putnam, Robert D(1993). 앞의 책.

참여의 네트워크와 규범이 경험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그것들이 중요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가치적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도구인 물적 자본 및 훈련을 통해 축적되는 인적 자본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사회 자본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 또는 공동체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네트워크가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증진시키고 호혜성의 배양을 용이하게 하고, 그러한 네트워크는 의사소통과 조정을 활성화함으로써 집단행위를 통한 문제해결을 용이하게 한다고 하였다. 한편 Fukuyama(1995)<sup>40)</sup>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규정하였으며, Portes(1995)<sup>41)</sup>는 개인의 능력이 사회적 자본이며 이는 개인이 타인들과 맺고 있는 관계의 특성에 달려있다고 하였다. Tarrow(1996)<sup>42)</sup>는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가치시스템과 신뢰관계, 사회적 결속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Woolcock(1998)<sup>43)</sup>은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정보, 신뢰, 상호이익의 규범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정의하였다. Pye(1999)<sup>44)</sup>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의 정도로 규정하였다. 즉, 사회적 자본은 시민성의 규범 위에 성립되고, 민주적 정치문화의 발전과 조응하여 강화된다고 설명하였다. Lin(2001)<sup>45)</sup>은 사회적 자본을 ‘목적론적 행동에 접근하거나 동원된 사회구조

---

40)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회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41) Portes, A.(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65-78.

42) Tarrow, S.(1996). *Fishnets, Internets and Catnets: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llective Action*. In Hanagan, M., Moch, L. & Brake, W. T. eds. *The Past and Future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43)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2), 151-208.

44) Pye, L. W.(1999). *Civility, Social, and Civil Society: The Powerful Concepts for Explaining Asi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9(4), 763-782.

45)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에 내장된 자원' 즉 개인, 조직, 지역사회 또는 전체 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도출된 자원이라고 하면서, 광범위한 시장에서의 보상을 기대하고 사회적 관계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문화, 상황, 여건 등에 따라 사회적 자본은 특정한 방식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정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OECD(2001)<sup>46)</sup>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 규범, 가치와 이해를 가진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사회적 자본은 문화와 행동규범의 산물이며 특정 개인의 배타적인 자산이기 보다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2000년 이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박희봉과 김명환(2001)<sup>47)</sup>은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서, 사회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의 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적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것은 개인과 사회의 공식·비공식적 모든 활동과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최종덕(2007)<sup>48)</sup>은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관계 자원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였고, 박용순(2009)<sup>49)</sup>은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형태의 총합이 사회적 자본이며, 이것은 사람들 간에 형성된 관계망에 기초하여 신뢰와 상호호혜성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소를 결합하고 활용하여 생성된다고 하였다.

---

46)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47) 박희봉·김명환(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4(4), p.119-237.

48) 최종덕(2007). 앞의 논문.

49) 박용순(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표 3> 사회적 자본에 대한 주요 정의

| 연구자                | 정 의  |
|--------------------|--|
| 박희봉과 김명환<br>(2001) | 사회 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는 것으로서, 사회의 규범, 신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회의 발전과 퇴보에 영향을 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축적할 수 있는 것 |
| 최종덕(2007)          | 사회적 협력을 촉진시키는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사회관계 자원  |
| 박용순(2009)          | 사회관계 속에 내재된 자원형태의 총합   |
| Bourdieu(1986)     | 지속적인 네트워크, 상호인정이 제도화된 관계, 즉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                                  |
| Coleman(1988)      | 한 사람이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
| Putnam(1993)       | 공동체의 사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수평적 단체 내의 관계   |
| Fukuyama(1995)     |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사회적 자본   |
| Portes(1995)       | 네트워크 혹은 사회적 구조의 구성원이라는 혜택 때문에 희소한 자원을 지배하게 된 개인의 능력  |
| Tarrow(1996)       | 사회적 환경 속에 있는 개인들의 행동을 촉진하는 가치 시스템과 신뢰관계, 사회적 결속과 같은 사회적 배경을 포함하는 개념                                |
| Woolcock(1998)     | 사회적 네트워크 내에 있는 정보, 신뢰, 상호이익의 규범  |
| Pye(1999)          | 집단행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신뢰의 정도   |
| Lin(2001)          | 목적론적 행동에 접근하거나 동원된 사회구조에 내장된 자원  |
| OECD(2001)         |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 규범, 가치와 이해를 가진 네트워크   |

출처 : 연구자 정리



이처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사회 내 인간의 활동을 통해 축적되고, 개인과 사회의 공식·비공식적 모든 활동·가치관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점은 공통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 내 구성원 간의 신뢰, 규범, 네트워크 등의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사회구조 내의 축적된 무형자산이며, 사회 구조 속에 행위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위를 촉진하는 메카니즘이라고 정의한다.

## 2) 사회적 자본의 특성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 내에서 특정 행위자의 특정 행동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자본들과 자본으로서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다른 사람 또는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본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은 개인적 자본이 아닌 사회구조의 속성 혹은 공공 자본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유석춘 외(2003)<sup>50)</sup>와 강인재 외(2005)<sup>51)</sup>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적 자원(personal resources)’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social resources)’이다.<sup>52)</sup> 따라서 물리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사적 재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홍현미라, 2005)<sup>53)</sup>. 상호간의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행위자가 배타적으로 사회적 자본을

50) 유석춘 외(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51) 강인재 외(2005).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52) Lin, N.(2001). 앞의 논문.

53)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변화 전략으로써의 자원 개발 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소유하기는 불가능하다.

둘째,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생성된 이익은 집단 모두가 공유하게 된다.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 또는 문화자본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이익이 배타적으로 돌아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사회적 자본의 경우에는 어떤 일방이 배타적으로 그 이익을 독점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은 사회적 자본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 사이에서만 배타적으로 공유되는 경우와 관계에 포함되지 않는 구성원에게까지 모두 이익이 공유되는 형태로 이익을 나누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사회적 자본을 공공재로 인식하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 방법이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물질자본과 인적 자본의 경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자본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사회적 자본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회적 자본은 한번 획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획득된 사회적 자본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사회적 자본에 구성원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서로의 관계를 끊임없이 재확인함으로써 인정을 받는 일련의 지속적인 교환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자본은 유지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Bourdieu, 1986).<sup>54)</sup>

넷째,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반드시 등가물의 교환은 아니다.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재화와 용역의 거래는 등가물의 교환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의 경우 사회적 자본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사회적 자본의 총량이 늘어나게 되는 정합(positive sum)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 자본의 거래는 반드시 동시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

54) Bourdieu, P.(1986). 앞의 책.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경우 그에 대한 보답을 즉각적으로 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은혜를 갚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것은 사회적 자본의 거래가 신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즉, 사회적 교환은 서로가 주고받은 도움에 대한 언젠가는 보상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뢰는 언젠가 깨질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자본의 거래는 불안정한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표 4> 사회적 자본의 특성

| 구 분        | 세부 내용   |
|------------|---|
| 사회적 자본의 특성 | 1. 사회적 자본은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로 구성<br>2. 사회적 자본으로부터 생성된 이익은 집단 모두가 공유<br>3. 사회적 자본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br>4. 사회적 자본을 매개로 한 사회적 교환관계는 반드시 등가물의 교환은 아님<br>5. 사회적 자본의 거래는 반드시 동시성을 갖는 것은 아님 |

출처 : 유석춘 외(2003)와 강인재 외(2005)의 연구 바탕으로 재정리

### 3) 사회적 자본의 기능

사회적 자본은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 사회단체 및 조직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만족, 건강한 가정생활과 조직생활, 만족스런 이웃관계와 단체 활동, 민주정부를 위한 참여와 지지 등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sup>55)</sup> 또한 사회적 자본은 인간관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소득의 증가, 노동시장 기능의 효율화, 범죄 수준의 하락, 정부기관의 효과성 향상 등 사회발전에 기여한다.<sup>56)</sup> 뿐만 아니라 사

55) 박희봉(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회적 자본은 교육성과 향상, 국민보건 및 건강관리, 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경제문제 해결을 비롯한 제반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순기능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기능을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이다<sup>57)</sup>.

첫째, 사회적 자본은 행동의 능률성을 증가시켜 준다. 사회적 자본은 정보확산의 능률성을 증가시켜 줌으로써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 준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 개인 신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상호교환 등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핵심적 정보가 사회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을 통하여 형성된 높은 수준의 신뢰는 작업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을 약화시킴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공식·비공식적 제도가 사회적 자본의 축적으로 인해 잘 정착된 사회에서는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을 줄이기 위한 장치가 발달되어 있으며, 인간 상호간의 활발한 네트워크를 통해 신뢰가 형성된 사회에서는 개인과 집단은 이상과 같은 정보왜곡이 최소화된다. 이것은 또한 구성원간의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가져온다.

둘째, 사회적 자본은 적용적 능률성을 높이고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협력적 형태를 촉진함으로써 조직의 혁신과 발전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자본은 조직의 혁신과 가치창출에 기여하게 된다.

셋째,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은 각 분야별 전문가를 접촉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단체나 조직에 가입함으로써 단체나 조직이 제공하는 귀중한 가치를 획득할 수

---

56) Putnam, Robert D(1993). 앞의 책.

57) Putnam, Robert D(1993). 앞의 책.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넷째, 사회적 자본은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규범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sup>58)</sup> 집단적 의사결정은 공공재와 시장의 외부효과 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며, 집단 의사결정이 사회 및 집단 구성원에 의해 형성되면 효과적인 정치·경제·사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사회적 자본의 역기능이다<sup>59)</sup>.

첫째, 집단의 구성원 내부의 강한 유대가 때로는 외부인의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기도 한다. 즉, 구성원간의 강한 유대는 구성원들 간의 경제적 교환의 편의성과 능률성을 신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는 반면 조직 외부의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배제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다. 가족 및 매우 친밀한 친구관계 등과 같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집단 내 신뢰의 제한된 범위는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수준에서 신뢰 및 협동수준을 하락시키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자본으로 인하여 비롯된 조직의 폐쇄성은 때로는 집단 내 구성원들의 성공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 지나친 사회적 자본을 말미암아 파생된 구성원들의 내부 지향성은 특정 구성원이 외부 조직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며, 지나치게 폐쇄적인 조직의 이미지는 그 조직에 속한 구성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무임승차의 문제도 발생한다. 즉, 성실하지 못한 구성원들이 공유된 규범적 구조에 의지하여 보다 성공한 구성원들에게 이익의 배분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지역사회와 집단에의 참여는 동조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사회적 자본이 지나치게 높은 조직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에 반대로 개인의 사적 자유는 제한되어질 수 밖

---

58) Serageldin, I. & Grootaert, C.(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n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40-58.

59) Portes, A.(1995). 앞의 논문.

에 없다. 특히 젊은 구성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사회적 자본은 오히려 생활의 불편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넷째, 집단의 강한 결속력이 때로는 주류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주류사회에 대한 열등감은 조직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조직의 폐쇄성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주류사회에 저항하는 형태를 보인다.

<표 5> 사회적 자본의 기능

| 구 분 | 세부 내용   |
|-----|---|
| 순기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행동의 능률성을 증가시켜 준다.</li> <li>2. 적용적 능률성을 높이고 창의성과 학습을 촉진한다.</li> <li>3. 경제적 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li> <li>4. 집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규범을 통하여 외부효과를 창출한다.</li> </ol>   |
| 역기능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성원 내부의 강한 유대가 때로는 외부인의 접근을 강하게 제한하기도 한다.</li> <li>2. 사회적 자본으로 인하여 비롯된 조직의 폐쇄성은 때로는 집단 내 구성원들의 성공에 장애요소가 되기도 한다.</li> <li>3. 지역사회와 집단에의 참여는 동조성을 강요하는 경우가 발생한다.</li> <li>4. 집단의 강한 결속력이 때로는 주류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li> </ol> |

출처 : 연구자 정리

#### 4)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주요 학자들이 제시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leman(1988)과 Putnam(1993)은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으며, Portes(1995)는 네트워크를 Fukuyama(1995)<sup>60)</sup>는 규범만을 사회적 자본이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Pye(1999)<sup>61)</sup>는 신뢰, 협동, 연결망을 제시하였고, Stone(2001)<sup>62)</sup>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관계 구조, 사회관계의 질(규범),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oleman(1988)<sup>63)</sup>과 Putnam(1993)<sup>64)</sup>이 제시한 신뢰, 네트워크 그리고 사회규범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첫째, 신뢰이다. 신뢰는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사회적 자본의 주요 구성요소들 중 하나인 신뢰는 사회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 또는 주관적 기대의 확률 등으로 정의한다.<sup>65)</sup>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집단 구성원들간의 신뢰는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과 집단 간 또는 개인과 개인의 결속력은 바로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며, 신뢰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 행위자들은 협동을 할 수 있고, 감시와 통제 비용을

---

60) Fukuyama, F.(1995). 앞의 책.

61) Pye, L. W.(1999). 앞의 논문.

62) Stone, W.(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63)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95-120.

64) Putnam, Robert D(1993). 앞의 책.

65) 김명수(2010). 사회적자본 형성에 관한 초등학교평생교육 참여자의 인식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자본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신뢰는 대상에 따라 미시적 차원의 신뢰(사적 신뢰)와 거시적 차원의 신뢰(제도적 신뢰)로 구분할 수 있다.<sup>66)</sup>

둘째, 네트워크이다.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중 네트워크는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네트워크란 사람들 사이의 모든 종류의 연계이며,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간에 사용되는 형식화·비형식화된 상호작용 체계이다. 또한 네트워크는 이웃과 지역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웃관계는 잠재적 자원의 동원과 안전망을 확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거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정보와 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한다.<sup>67)</sup>

네트워크는 지역사회에서 동창회, 동호회, 친목회, 계, 사회체육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동호회, 스터디 그룹, 지연, 혈연, 학연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크게 공식적 네트워크와 비공식적 네트워크로 구분할 수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에는 가족, 친구, 이웃이 포함되며, 공식적 네트워크에는 집단에 기초한 관계, 집단에 기초하지 않은 시민관계, 직장과 연관된 관계, 제도적인 관계 등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수가 많을수록,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의 강도가 강할수록, 잠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은 많아진다고 할 수 있다.<sup>68)</sup>

마지막으로 호혜성 규범이다. 규범은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행위자가 아니라 타인들이 가질 때 존재한다.<sup>69)</sup> 따라서 규범은

---

66) 김명수(2010). 위의 논문.

67) Bourdieu, P.(1986). 앞의 책.

68) 박찬웅(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출판.

69) Coleman, J. S(1988). 앞의 논문



사회체제에서의 합의의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이므로 설명할 수 있다. Coleman(1988)<sup>70)</sup>은 강력한 사회자본의 형태를 구성하기도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형성시키고 그에 따른 사회적 교환과 협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Putnam(1993)<sup>71)</sup>은 일반화된 호혜적 규범은 시민참여 관계망의 기대를 통해 확고해진다고 하였다.

Fukuyama(1995)<sup>72)</sup>도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그는 조직이 윤리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에 기초할 때 효율적이 된다고 하였다.

호혜성 규범은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을 일컫는다. 이러한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하고 있으며, 호혜성의 규범에서는 교환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얻은 것을 되갚아야 할 의무와 자신이 베푼 것을 되돌려 받아야 할 권리 모두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단내의 규범은 구성원의 기회주의적인 행위를 처벌하고 따라서 그러한 성향을 줄이게 됨으로써 공식적인 법제도가 마련하지 못하는 범위와 정도로 집단 내 구성원간의 상호 협조를 낳게 할 수 있다.<sup>73)</sup>

---

70) Coleman, J. S.(1988). 앞의 논문

71) Putnam, Robert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72) Fukuyama, F.(1995). 앞의 책.

73) 홍현미라(2005). 앞의 논문.

<표 6>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

| 구 분    | 세부 내용  |
|--------|--|
| 신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의 기반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믿음</li> <li>▪ 사회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자신의 기대 혹은 이해에 맞도록 행동할 것이라는 주관적 기대 또는 주관적 기대의 확률</li> </ul>                                       |
| 네트워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li> <li>▪ 사람들 사이의 모든 종류의 연계이며,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 간에 사용되는 형식화·비형식화된 상호작용 체계</li> </ul>   |
| 호혜성 규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규정된 권리를 행위자가 아니라 타인들이 가질 때 존재</li> <li>▪ 누군가로부터 무언가를 받으면 그것을 준 사람에게 그 만큼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회의 일반적 규범</li> <li>▪ 사회체제에서의 합의의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li> </ul> |

출처 : Coleman(1988)과 Putnam(1993)을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 III.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환경조형

#### 1. 도시공간에서의 사회자본 창출

사회적 자본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협동 등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면 우리의 도시생활은 사실상 거의 모든 부문에서 사회적 자본과 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문제란 도시생활에서 경제적 자본논리에 매몰되어 나타나는 사회적 자본의 결여 내지 결핍상태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각종 범죄, 자살, 소외, 청소년 비행, 노인문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제 등의 문제는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전형적인 도시문제 유형인데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사회적 신뢰라든가, 규범, 참여, 네트워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도시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웃에 대한 신뢰관계가 단절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지 않으며, 지역사회의 행사나 지역정치에의 참여에 소극적이거나 이웃과의 협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역기관이나 개인 간의 상호교제를 위한 네트워크가 결여되어 있다면 사실상 그 지역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경수(2011)는 도시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제반문제에 대한 사회적 자본을 통한 접근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sup>74)</sup>.

첫째,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과 정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제도 구축, 도시지역사회에서 잠재된 사회적 자본들을 발굴해 내고 관리·육성하는 것, 사회적 자본이 결핍된 도시지역에 대해 진단과 처방,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우선 사회적

74) 임경수(2011),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접근, 도시문제, 46(513), p.20-24.

자본과 관련한 제도 구축은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잠재적 사회적 자본도 도시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체 사회 메커니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동되어야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방정부에서 사회적 자본의 잠재적 요소들을 발굴하고 육성·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자본이 결핍되어 나타나는 도시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정책실패의 최소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소위 이 경우는 의도적인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입안과 집행이 필요하다. 사실 사회적 자본이 잘 형성되어 있는 지역사회일수록 통치보다는 거버넌스에 의한 쌍방향 의사결정 체제를 갖게 된다. 도시지역사회의 어떤 일에 대해 지방정부와 시민 간 쌍방향 의사결정은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도시사회문제, 예컨대 자살, 청소년범죄, 노인소외문제 등의 경우는 이웃 간의 네트워크나 기관 간 네트워크, 이웃 간의 신뢰와 교제 등의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둘째, 개인 및 시민사회단체가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도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자발적인 개인과 시민사회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이 자주 바뀌고 지방의회 역시 선출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문제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임기응변적, 전시효과적 일처리가 되기 쉽다. 따라서 보다 지속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개인과 시민단체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들에 의한 사회적 자본 형성 노력이 도시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개인 및 시민단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을 위해서는 주민교육을 통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기존의 주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도시 전체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을 형성 및 확충하되, 이런 요소들이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므로 개인과 지역사회가 보다 활기차고 삶의 질이 높아지며 다른 지역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게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해야 한다. 왜 사회적 신뢰가 구축되어야 하는가, 왜 서로 협동하고 지역사회의 일에 참여하여야 하는가, 왜 정해진 사회적 규범을 잘 준수하고 이웃 간에 좋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렇게 되었을 때의 삶이 더 행복하고 다른 지역보다도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된다는 결과를 알게 되면 도시문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임경수(2011)의 주장을 요약하면 사회구성원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구조와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은 사회구성원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환경조형의 목적과 유사성을 가진다.

김선희(2011)<sup>75</sup>는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국토·도시환경계획과 관리에서 사회적 자본 형성 요소 등을 고려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첫째, 주민들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만족도는 사회적 자본 형성의 정책지렛대이다.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 동기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참여활동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공원관리 및 운영, 도로관리 및 운영 등에 민관공동의 파트너십 형성이 요구된다.

둘째, 분야별로 맞춤형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지역별·분야별로 그 수준 및 작동 경로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역특성에 맞는 계획 및 관리방식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 축적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선 도시 및 지역분야에서는 뉴타운이나 도시재개발, 혁신도시 등의 도시재생 및 정비계획에 있어서 공동체 의식, 거주기간, 주거만족도와 소속감을 높일

---

75) 김선희(2011). 도시환경과 사회적 자본. 도시문제, 46(513), 25-28.

수 있는 정책모색이 필요하다. 물리적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커뮤니티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고 장기거주 유도 및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재개발 사업, 뉴타운 사업 등 국토관리활동 등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정도는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며, 주민참여의 정도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삶의 질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적극적인 국토관리활동을 통해 쾌적한 공공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만족도를 높임으로써 동네만족도와 공공 및 민간 추진주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국토관리 방식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향후 주민들의 공공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토관리에서의 주민참여는 단순히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한 소극적 수단이 아니라 각종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주민들과 공유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파트너 관계를 포괄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 주민단체의 네트워크 중심성이 높으면 지역사회 국토관리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주민참여를 촉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을 공동 생산자(co-producer)로 끌어들이고, 이를 통해 주민을 조직화하면 국토관리 분야에서 주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정부부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므로, 사회적 자본 축적의 관점에서 민간부문과 파트너십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임경수(2011)의 주장과 결부되어 주민이 주체가 되어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사회구성원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구조와 노력이 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도시공간이든 아니든, 공간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생활주체들의 삶의 궤적을 남기며 끊임없이 생성·변천·소멸된다. 따라서 누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삶이 그 공간에서 펼쳐지느냐에 따라 공간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공간문화는 삶의 방식을 구성하고 제약하면서 삶의 질을 결정짓는 주요인자로 작용한다. 그동안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위기들은 독특한 공간문화와 근대적 도시경관을 창출하면서, 우리의 일상적 삶에 영향을 끼쳤다.<sup>76)</sup> 예를 들어, ‘성장과 개발 위주의 경제지상주의 공간문화’를 들 수 있다. 성장과 효율성, 기능을 위주로 한 무질서한 개발로, 생활공간은 아파트와 고층빌딩, 아스팔트 도로 등 삭막하고 단조로운 콘크리트 문화로 가득 차게 되었다.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과 공간정책은 서울의 과대성장과 지방의 영양실조라는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경제지상주의 공간문화는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과 전통성을 파괴하는 ‘정체성 상실과 획일화된 공간’을 또한 창출하였다. 심각한 지역불균등발전 속에서 대부분의 도시들은 정치·경제적인 소외와 함께 차츰 문화적 자율성과 주체성마저 상실하여 어딜 가나 서울을 모방한 획일적이고 개성 없는 경관이 형성되었다. 공공건물의 건축양식, 상가들의 간판모양과 상호, 고층아파트의 스타일, 식당 차림표, 자동차 번호판까지 경관이 표준화되고 대량 복제되었다.

인간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인간의 지혜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 이것은 내·외부 환경변화를 야기하였고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를 거듭해왔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인간은 각 시대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을 개발해 왔다. 원시시대에는 원시시대에 맞는 논리로 대응하였고, 농업사회에 와서는 농업사회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산업사회에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으로 문제에 대처하였다. 도전과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수많은 종족은 인류사에서 사라졌고, 도전에 대해 제대로 응전한 종족은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된 이후에도 육체노동에 의한 농사짓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산업화시대에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기계화된 산업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산업시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도 경운기 또는 트랙터로 논밭을

76)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경작해야만 농업생산성을 끌어올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sup>77)</sup> 따라서 사람은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논리에 맞춰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

사회자본 측면에서 시대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면 인류는 지속적으로 사회자본 수준을 높여왔다. 혼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던 원시시대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한정되었으며 생산성도 낮았다. 농업시대에 들어서 인간의 협력이 증진되면서 생산성이 그 만큼 증진되었다. 산업시대에는 분업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탈산업시대 개인의 전문성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개인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견하지만 개인 간의 상호의존성이 발전되지 않고는, 인간관계의 발전, 즉 사회자본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는 탈산업사회의 풍요를 생각할 수 없다.<sup>78)</sup>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소통의 공간으로서 도시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거리는 가정의 익숙함과 사회의 낯설음이 일차적으로 조우하는 매개공간이다. 꼬마들에게 그곳은 해질녘 까지 동네친구들과 어울리는 ‘놀이 공간’이자, 지역커뮤니티의 숨결을 처음으로 느끼는 일상의 소유주이다. 거리는 갈 곳 없는 십대들에게 만남과 사귀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헤어진 연인들이 추억을 회상하며 거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 또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거리는 답답하고 숨 가쁜 일상을 벗어나 삶의 호흡을 가다듬는 ‘여가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삶의 욕망과 정치적 불만을 배설하는 ‘정치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거리엔 개인의 다양한 경험과 정서와 욕망이 담겨 있다. 그래서 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즉 ‘공공 공간’이다.<sup>79)</sup>

도시를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은, 사회적 과정이고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생성·변천·소멸되어가는 ‘사회 공간’으로서 도시를 바라봄과 동시에, 그 속에서 삶의 질과 삶의 결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내는 것을 의미한다.<sup>80)</sup> 그동안 많은 서구의 도시 학자들이 도시를 문화로 간주하려 한 이유도 그

---

77) 박희봉(2009). 앞의 책.

78) 박희봉(2009). 위의 책

79) 이무용(2005). 앞의 책.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과 효율, 기능 위주의 무질서한 개발은 도시를 쾌적한 생활공간이 아닌, 치열한 생존공간으로 만들어버렸다. 또한 심각한 도시의 과밀화외 지역불균형, 환경파괴로 인해 삭막한 콘크리트 도시문화가 만들어졌다. 그런 가운데 각 도시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전통성과 정체성은 파괴되어 갔고, 어딜 가나 똑같은 모양의 획일화된 도시로 변모해 왔다. 당연히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정되게 문화적 향수를 누릴 수 있는 휴식공간과 놀이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 역시 부재하였다.<sup>81)</sup>

이 때문에 문화 공간 혹은 시설 조성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것은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삶을 담는 그릇이자 삶을 생성하는 발전소라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물리적 시설 조성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이용할 사람과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활동 즉, 콘텐츠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사회적 자본 이론가들은 사회적 자본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복잡한 자원이며, 교육, 보건, 범죄, 복지, 경제성장, 정치기관의 성과, 효과적이며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발전 등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정책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매우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도 공간과 미술이 사회적 자본과 깊은 연관을 가진다고 보고하는데 마정혜(2010)<sup>82)</sup>는 사회적자본에 기반한 체험콘텐츠 디자인이 지역 과학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공간적 측면으로써, 체험형 교육콘텐츠를 교육하는 공간과 이벤트, 축제 쇼를 즐길 수 있는 야외 체험 공간, 기획 및 특별전시 공간의 확충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

80) 유석춘 외(2003). 앞의 책.

81) 이무용(2005). 앞의 책.

82) 마정혜(2010).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체험콘텐츠 디자인이 지역 과학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하였다. 둘째, 교육적 측면에서, 실감콘텐츠와 참여형 교육콘텐츠가 신뢰도, 만족도를 높게 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문화원형 콘텐츠에 대한 사회적자본의 증가를 위해 상설전시의 문화원형 전시물과 전시내용에 대한 이야기전개식 설명을 통하여 문화원형에 대한 접근성을 유도하고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인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인주(2013)<sup>83)</sup>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미술과 디자인 정책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문화정책과 디자인 정책을 통해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자본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 지자체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문화 및 미술정책의 시행 추진력이 약하므로 중앙정부의 재정적 보조와 아울러 독립된 권한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셋째,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간의 문화예산 관련 지출과 지원에 관한 적절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도록 예산계획과 집행, 예산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지속적, 균형적, 자율적인 문화예술 지원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권한과 역할도 보다 확대 개선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디자인산업에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교화된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진다면, 디자인문화 강국으로써의 미래 한국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한정된 지역범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자본의 분석단위를 지역사회나 근린 등에 국한 했을 때, 기존의 거주지에 대한 개념 중에서 근린의식, 커뮤니티 의식 등 상호관계만을 고려하는 것에 비해 구체적 형태로 나타나는 참여, 이웃관계 외에 지역사회문화 및 규범, 신뢰 등을 포괄할 뿐만

---

83) 김인주(20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미술과 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아니라 그러한 관계망이 자원으로 활용되어 근린의 발전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근린의 개념보다 발전된 개념이다.<sup>84)</sup> 사회적 자본은 경제활동에서 거래비용 감소 등의 효과적인 기능과 안정적인 자유 민주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개인과 집단, 권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중대한 기초 역할을 하며, 커뮤니티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p>85)</sup>.

결과적으로 사회자본 창출은 동질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네트워크라는 범위에서 정부의 지원, 시민의 참여로 인해서 가능해 지는데 이 때 시민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는 주체이고 정부는 지원을 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안정적으로 시민사회의 변화를 뒷받침하고 시민사회는 내부적 소통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그 지역사회의 규모와 사상, 미래를 감안하는 적극적인 행동자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주도로 친환경도시의 위상을 획득한 스위스의 체르마트, 시민사회의 지원자로서 정부가 존재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시민사회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서 군사도시에서 유럽의 환경수도로 탈바꿈한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는 도시공간에서의 사회자본 창출이 시민사회주도로 이루어져야 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2. 환경조형의 사회적 자본속성

사회적 자본으로서 환경조형이 필요한 것은 환경조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환경조형은 대중들의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광장,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 조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광장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도시국가시대의 그리스에서 광장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

84) 천현숙(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p.215-247.

85) 박희봉(2009). 앞의 책.

와 토론을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민주적인 투표에 의해서 결정을 하던 곳이다. 사회적 자본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공공공간에 설치된 환경조형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먼저 표식물로서의 환경조형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표식물은 도시의 상징물로서 도시의 이미지와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제공한다. 아울러 표식물은 환경과 인간의 관계, 시설물과 인간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표식물로서의 환경조형은 도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표식물을 중심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시설, 인간과 도시, 인간과 환경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들어 서울 신문로의 홍국생명 사옥에 자리 잡은 조나단 브롭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은 서울의 역동성과 서울시민의 근면함을 상징하는 표지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조형물은 서울시민과 서울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1> 조나단 브롭스키의 ‘망치질 하는 사람’ (서울, 흥국생명 사옥)

기념물로서의 환경조형의 기능도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로부터 기념물(monument)은 주로 개인의 업적이나 역사, 사회적 사건 혹은 이념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지는 것으로 시대감정이나 의식의 산물이며 국가나 민족성 그리고 정신이 담겨져 있다. 광화문 사거리 에 조성되어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면서 시민들은 임진왜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운다. 또한

많은 어린이들은 위인의 발자취를 뒤돌아봄으로써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 나간다. 이처럼 기념물로서의 환경조형은 시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한다. 또한 사회적 규범과 질서, 시대정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림 22> 이순신 장군 동상(광화문)

또한 기념물로서의 환경조형은 구성원들간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신뢰를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도 기여한다. 현대적 개념의 기념물은 과거의 영웅이나 업적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구조의 변화와 민주사회의 인본

주의 사상과 함께 일반 대중의 공동체 의식을 표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하나의 조직을 움직이는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 또한 기념물로서의 환경조형은 시민과 함께 공존하며 그것을 향유하는 시민과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깊은 연대감을 갖게 된다.<sup>86)</sup> 따라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기념물은 모든 시민들로 하여금 시대정신과 공동체의 이념을 한곳으로 모아 주며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높여준다.

실용성을 강조한 환경조형의 대표적인 예는 분수 조각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분수는 구심점이 되어 방향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즉, 공간에서도 분수대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게 되고 공간을 대표하는 차원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자연요소가 인간과 접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분수대는 역할을 하는데, 대자연의 요소를 끌어 들여 작품에서 한정된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시각과 촉각에서의 쾌적함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한다. 이처럼 분수조각은 보는 이의 심리적 변화를 유도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도모한다. 또한 분수조각은 공동체의 구성원이 자연스러운 만남과 대화를 유도한다. 분수가 제공하는 심리적 안정감과 생명감은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수조각의 기능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함께 신뢰감 조성에도 기여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일조하게 된다. 또한 분수 조각은 공동체의 기념물로서 때로는 표지물로서의 기능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이상과 정신의 표상으로서 작용하기도 한다.

예컨대, 18세기 니콜라 살비(Nicola Salvi, 1697-1751)가 조성한 로마의 ‘트레비(trevi)의 분수’는 개선문을 본뜬 벽화를 배경으로 그리스 신화의 인물 조각상을 설치하였다. 옛 로마시대의 광장 내에 조성된 분수는 영웅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로마인들로 하여금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

86) 임춘배,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그림 23> 니콜라 살비의 ‘트레비의 분수’ - 로마

한편, 환경조형은 놀이공간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놀이로서의 환경조형은 시각적 조형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발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놀이를 위한 환경조형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품을 접하며 성장한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이해심이 많은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사회를 만들고 가꾸는데 필요한 영향력과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어린이들이 직접 만져보고, 텅굴고, 올라타는 등 신체접촉을 통해서 조각의 양감, 재료의 질감 등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놀이로서의 환경조형은 어린이들의 발달과정에서 자발적 참여 의



식과 동료들과의 유대의식을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간의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창의성의 함양, 예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접근,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를 들어 목동 주상복합 파라곤 앞의 밀레니엄 타임은 수경시설이 함께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율동적인 면을 강조하여 조형화한 작품이다. 교육도시라는 목동의 특성답게 어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의 행위만큼이나 교류 혹은 놀이가 이루어지게 한다. 87)



<그림 24> 밀레니엄타임(목동 주상복합 파라곤 앞)

한편 밀레니엄타임은 시각적으로 사회구성원에게 받아들여져 정서적 감흥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대현의 The Space라는 목동 삼성 웨르빌 앞의 환경조형은 목동 고층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작품으로 단순한 직선 형태로 정돈

87) 이정주(2006). 환경조각 조형설계. 경춘사.

하여 주민들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가져다준다. 중앙 광장에 세워지는 이 작품으로 인해 주변 공간을 정화시키고 쾌적함을 안겨주어 건물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sup>88)</sup>



<그림 25> The Space(정대현)

---

88) 이정주(2006). 앞의 책

이러한 시각 환경은 한 번 형성되면 그 이미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되된다. 물론 환경조형은 물리적으로도 제거하거나 수정하기가 어려운 특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89)</sup>. 주거단지 속 환경조각 또한 한 번 성립된 이미지를 수정하기 힘들지만 공공장소에 세워진 환경조각의 경우 더욱 다양한 인물군을 접하게 되어 그 파급효과는 생각보다 커지게 된다. 특히 공공장소에 세워진 상징적인 특성을 가진 조각품은 일류 브랜드의 상표처럼 공간이나 시설물을 대표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인 수정을 가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그만큼 공공장소에 세워진 환경조형은 시각적 충격을 이용하여 사람들의 심미환경이나 정서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sup>90)</sup>

이러한 환경조형의 유용성은 환경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근원적인 요인이라는 것에 기원한다. 인간의 모든 생활과 활동은 환경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도시는 기능과 효율성 위주로 계획되어 메마른 도시공간을 만들어 냈다. 도시환경은 시민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막대하며 자연이 파괴된 인위적인 공간으로서 그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대중과의 접촉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활동하는 실외공간이다. 종래의 조각에 있어서의 공간개념과는 달리 환경조형은 그 표현의 장을 직접적인 생활공간으로 이동시킴으로서, 조각에 있어서의 장소성과 공간인식에 대한 문제, 특히 조형적 공간과 생활에 대한 질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환경조형은 실존공간의 단순한 시각적인 초상화라기 보다는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개시하는 상징성의 의미에 그 근본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sup>91)</sup>

환경조형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환경조형은 공공미술과 달리 도시·자연공간에 도시 미관을 위한 심미적 기능이 있다. 이 점은 공공미술의 공공성기능의 역할과 대비되는 것인데, 도시

89) 최병상(199.).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90) 이정주(2006). 환경조각 조형설계. 경춘사.

91) 심문섭(1994). 앞의 책.

공간 속에서 미적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으며 예술가의 재능에 의한 의외성과 시각적 자극을 준다. 그러나 심미성뿐만 아니라 도시공간의 쾌적함을 주는 공공성기능 역시 보편적 장점이다.<sup>92)</sup>

환경조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인식은 식별성, 심미성, 접근성, 조화성, 상징성 순으로 평가되는데 식별성은 도시공간의 표식물의 기능이 시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예를 들면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이나 광화문 광장의 ‘충무공 이순신동상’과 같은 기념비적인 상징물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표식물의 기능(Land Mark)으로 식별성을 갖추으로써 공공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경조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중 하나는 도시공간과의 부조화로 인해 시각적 공해를 유발시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960년대 중반부터 ‘공공장소 속의 미술’ 적용은 다량의 환경조형을 만들게 됐는데, 오히려 건축물과 공공장소와의 부조화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83년 이래로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에 의해서 양산된 환경조형물 혹은 미술장식품 조각들은 환경조형이라는 옷이 입혀져 대량으로 제작되었고, 이로 인해 수준 이하의 조잡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도시 공간 속 심미적 기능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sup>93)</sup>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조형은 사회적 참여를 중요시하는 공동체미술로서 ‘공공·공익·공중’의 의미부여를 통해 적합성을 지녀야 한다. 형식과 내용을 아우르고 세상의 필요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환경조형이 공익을 위한 역할을 할 때 충분한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조건을 갖춘다. 다시 말해 공공장소에 설치되고 관람자들은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때를 말한다. 이러한 상호적 작용은 환경조형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자기비판을 통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이를 통해 도시공간에 설치된 환

92) 김석(2011). 앞의 논문.

9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차 시각예술정책포럼, 아르코미술관, 2006년 10월 26일. (김석(2011). 재인용)

경조형은 지역의 자부심으로 존재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 속에서 환경조형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숨쉬며, 꿈을 내포해야 한다. 도시의 환경조형은 조각으로서의 모습과 도시의 모습을 하나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의미와 역할과 과제로서 진정한 인간성 회복에 그 존재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살펴본 바와 같이 환경조형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만남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와 이념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구성원들간의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조형을 활용한 아동들에 대한 미술교육은 아동들의 창의성 발달과 예술에 대한 이해는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구성원들간의 신뢰형성 그리고 네트워크 형성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 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환경조형 활용의 선행조건과 방향

사회적 자본으로서 환경조형의 활용은 사회자본 확충의 개념에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적 요구가 적용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시민사회는 집단행동 딜레마의 극복, 로컬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고, 정부는 주민의 적극적 참여와 이에 대한 지원, 정부로 부터의 구체적 지원조직으로서 NGO 협력부서를 통한 안정된 지원, 시민교육의 강화, 도시공동체 운동의 적극적 전개, 자원봉사문화의 활성화 등 사회적 자본의 틀과 요구와 동조해야 한다.

---

94) 김석(2011). 앞의 논문.

## 1) 시민사회의 접근

### (1) 집단행동의 딜레마 극복

사회적자본 연구자들의 공통된 주장은 사회적자본의 활성화가 집단행동의 딜레마와 관련된 무임승차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의 정치·경제적 번영과 인간의 행복한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Colman에 따르면, 한 사회 주민 전체가 상호중첩적인 두터운 관계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주민들 간의 정보의 흐름이 용이해지고, 평판(reputation)을 확대함으로써 규칙위반자에 대한 제재효과를 거두어 집단행동의 딜레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자본은 다른 공공재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책임 할당을 통해 강화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공공재가 안고 있는 무임승차(free-rider)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통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로컬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복잡한 현대사회에서는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부, 기업 그리고 비영리조직 간의 상호 긴밀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협조체제가 필수적이다. 사회적자본은 참여를 통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강조함으로써 신뢰에 기초한 시민사회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인과 집단 및 조직 간의 협동적이고 집단적인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킨다. 그러므로 사회적자본은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 (3) 지역사회문제의 해결

사회적자본의 구성요소인 규범과 네트워크는 지역사회문제의 발생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도시정부와 더불어 공동의 문제 해결자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적자본을 통하여 지역공동체의 규범이 강화되면, 규칙을 따르지 않는 기회주의적 구성원을 견제함으로써 범죄나 안전의 문제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며, 타인을 위해 양보하는 미덕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행정수요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사회적자본은 교육, 빈곤, 범죄, 청소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도시정부가 안고 있는 심각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

## 2) 정부조직의 접근

### (1) 로컬 거버넌스의 확대 강화

Local Governance는 지역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조직, 지역주민을 포함한 각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로서 각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한 정치·사회적 상호작용을 장려함으로써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사회 주체들 간의 협력적인 Local Governance가 더욱 더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파트너십(community-based partnership)을 보다 더 강화하여 사회적자본 생산자인 NGO조직들을 더욱 강력한 정책투입과 정책참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만 한다. 또한 도시정부는 사회적자본 생산자와의 정책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도시정부의 관리 혁신 및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 (2) 주민자치활동의 적극적 지원

시민참여 네트워크는 일반화된 상부상조의 확고한 규범을 배양하고, 타인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과 협동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적자본 증진에 이바지한다. 그러므로 사회적자본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더욱 더 증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정부에서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육성을 위해 커뮤니티 행정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공동체형성사업, 지역사회의 공동체지도자의 육성, 집회시설의 증설 등 지역사회 서비스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 (3) NGO 협력 부서의 신설 및 지원

사회적자본은 자발적 조직을 통해 형성되는 구성원간의 신뢰, 참여규범, 협동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시민조직과 비정부 조직들이 자신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부 조직 내에 NGO 협력 부서를 신설 운영하여 시민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4) 시민교육의 강화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동적 노력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호작용, 자발주의, 상호존중 등과 같은 사회적자본을 양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시민교육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의 일부가 되게 하는 행동양식과 교훈을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정부는 지역사회조직들이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회화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자본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더욱 더 확대하는 등 시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 (5) 새로운 도시공동체 운동의 적극적인 전개

사회적자본의 핵심은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미덕 또는 정신을 장려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도시정부 내에서 활발한 공익활동을 벌이는 많은 공동체조직, 예를 들면 합창단과 문학서클, 라이온스클럽과 축구동호회 등이 공동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공정하게 행동하리라 믿는 새로운 도시공동체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도시정부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시공동체 운동을 지원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6) 자원봉사문화의 활성화

자원봉사활동은 사람들 간의 신뢰, 유대 및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면서 사회적자본의 증진에 이바지하므로 도시정부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잠재적 자원봉사자들을 자원봉사활동 현장에 참여시키고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하는 유인제도의 강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자원봉사보험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실행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의 실질적인 실행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자본은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건설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의 능력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도시정부는 적극적으로 사회적자본의 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단순히 사회적자본이 고갈되는 것을 막는 역할에 그칠 수도 있다.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취약한 지방재정과 부족한 인적자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자본의 창출 노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회적자본의 고갈을 막는 측면에서 혹은 시민사회영역에서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사회적자본의 확충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IV. 결론을 위한 논의

### 1. 환경조형을 위한 수업계획의 방향

우리 생활 주변에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조형이 존재한다. 도시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건물 앞에 놓은 조각이나 공원의 조형물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이들 모두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시 속의 공공미술이자, 환경조형이다.

오늘날의 공공미술 및 환경조형은 공공성의 유행과 맞물려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공공미술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살리고, 미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올바른 안목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올바른 의식과 안목은 어릴 때부터 주어지는 환경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길러지는 것이므로 공공미술 및 환경조형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 미술교육에서는 공공미술 및 환경조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 되어야 한다. 교육적 관점에서 미술교육을 보면, 학생들의 감성과 사상을 상징적으로 작품화하여 나타내는 외형적인 활동인 ‘표현활동’이 있고, 그것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 감정이입을 통해 향수하는 ‘감상활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미술과 교수와 학습에서는 이 두 활동을 통하여 미적 경험 중에서 인격적 발달에 유익한 요소들을 선택하여 그것을 미술교육의 내용과 목표로 설정한다.<sup>95)</sup>

아이스터(E. Eisner)는 미술교육을 크게 본질주의적 측면(Essentialistic Justification)과 맥락주의적 측면(Contextualistic Justification) 두 가지로 구분

---

95) 김삼량(198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하였다.<sup>96)</sup> 본질주의적 측면은 오직 미술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인간의 경험과 이해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며 심미적 사고능력, 미적 감수성의 함양, 독특한 개성과 문화적 자원의 향유를 목적으로 한다. 이와 달리 맥락주의적 측면은 미술을 통해 창의력 및 미적 안목육성, 표현력 향상 등의 도구적인 입장을 갖는다.

미술교육 자원으로서 환경조형은 용이한 접근성으로 인해 교육적 가치가 높다. 환경조형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인 공공미술은 작품형태에 있어서도 공공장소를 디자인한다거나 건물의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등 미술활동에 있어 공간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조형물은 벽화, 조각, 매체,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있고, 표현 재료와 양식, 기법 등이 다양하다. 따라서 공공미술은 교실 내에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청소년들의 미적 감수성, 창의성을 자극하고 미적 안목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좋은 교육적 소재가 될 수 있다. 환경조형의 교육적 가치는 첫째, 도시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나갈 수 있다.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환경은 성인보다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자신의 주위환경을 돌아보고 그것의 존재가치와 자신에게 있어서의 의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미술이다. 시간이나 돈을 따로 투자하여야 하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예술작품들과 달리 공공미술은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지 않으며, 생활과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 등교 길에 학교 마당이나 광장에서도 볼 수 있으며, 공원, 아파트 근처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언제나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거나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실용적인 미술이다. 즉, 자신이 생활하는 공간을 소재로 삼아 생각하고 표현해 보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들은 조각미술을 더욱 친근한 것으로 인식하게 되

---

96) 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예경.

고, 인간에게 유익한 아름다운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공공성과 감상비평능력을 키울 수 있다. 공공미술은 미술관과 박물관의 예술과는 달리 다분히 대중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통과 교감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공공미술작품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니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공공미술의 예와 문제점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비판적 감상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공공미술의 정의를 일깨워 줄 수 있다.

넷째, 공동체 유대감을 강화한다. 공공미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참여하는 동안 서로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지자체와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미술의 표현활동을 교육할 경우 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급단위의 협동학습을 통해 협동심과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환경조형 감상은 여러 미술관의 어느 흰 벽면에 설치해도 좋은 일반 회화작품과 달리 특정 장소와 환경에 맞춘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형식의 감상비평학습을 제시해야 한다. 그저 감상평만을 나열하는 ‘미술관을 다녀와서’, ‘OO전 감상문’과 같은 형식의 감상문이 아니라 작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회와 장소 환경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분석해보는 기회로 가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자신의 의견을 타인과 비교·분석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으로 사회성과 협동심 함양은 물론, 공공미술과 환경조형에 대해 더욱 올바른 인식일 심어 줄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형의 미적체험활동 수업은 학생들이 생활 주변에 있는 환경조형물을 직접 찾아 돌아보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본인의 생각대로 재구성해 봄으로써 도시환경미술의 필요성과 가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환경조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조형을 활용한 도시환경 미술교육을 위한 수업은 디지털화된 영상의 이미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작품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돌아보면서 보다 현실적

인 이미지와 공간을 소재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획일적인 시각과 독창성의 결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2. 환경조형 활용 교육의 주안점

고도산업사회의 결과로 집단화된 인간환경에서 인간적인 환경을 모색하고 추구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조형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공원이나 역전, 광장, 건물의 주변 등 적절한 공간에 단체나 기업에서 조각을 설치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추세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문화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주며, 즐겁고 쾌적한 생활을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환경조형을 활용한 교육은 피교육자가 다음과 같은 시선으로 환경조형을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먼저 환경조형은 도시공간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야 하며 삭막해지기 쉬운 도시공간을 살아 숨 쉬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환경조형은 도시공간의 구성요소인 생활의 다각적인 공적공간이 대중을 위한 자연화와 인공화로 알맞게 조화시킨 가능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조형은 시대성과 양식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조각이어야 한다.

도시환경은 인간의 삶을 담는 공간이고,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양식으로 지어진 건축물과 여러 가지 재료, 규모, 여러 가지 형태들의 시설들이 혼합되어 도시환경을 형성한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런 혼재되어 있는 양상들의 도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적 이기와 경제의 논리로 개발되기만 하는 도시가 아니라, 인간의 자연성을 존중하는 정서적 환경으로서의 도시, 감성적 요소와 자연환경의 합일체로서 문화적 환경을 이루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시는 사람들의 삶, 문화, 정신, 역사, 희망, 꿈 등을 담고 조화로운 생활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조형 자체도 하나의 완결된 조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거리의 간판이나 구조물인 다리, 육교, 보도, 가로 등, 의자, 표지 및 게시판 등에서도 좋은 조형적 요소를 발견하여 시민들에게 미의식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식 시켜야 한다.

환경조형은 우리의 미래생활을 생각해 볼 때 반드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환경조형 교육을 통해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활동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줄 다양한 환경조형 속에서 적극적이고 실천 가능한 환경조형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한다.

최근의 환경조형은 다양한 표현방식을 사용한다. 다양한 재료와 양식에 의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한 환경조형은 도시 구조물에 어울리는 추상적 혹은 비구상적인 형태를 지니며, 보다 근본적인 역할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즉 특별한 내용이나 의미를 주입하기 보다는 지각과 심리적인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미술교육은 미적 체험을 통하여 대상이 가지는 존재의 아름다움을 각성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표현된 작품에 공감하는 미적 향수에 이르는 일련의 직접적 체험의 과정이다. 미술에서의 사상과 직관과 감정은 교육에서의 인간 존엄성 및 주체성과 통하며, 창조나 가치는 잠재가능성, 가변성 및 진보와 통한다. 또 미술에서의 조형형식은 교육에서의 계획 즉 질서 및 합리주의와 통한다.

따라서 미술교육은 전일제로서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미술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은 미적 인간, 심미적 인간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아름다움을 잘 느끼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인간을 말한다면, 심미적인 인간 육성에 미술교육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미술교육은 미술품에 대한 지식이나 미술적 유산 또는 문화적 유산적인 요소와 형태가 어떻게 변형, 변화되어 표현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문화의 다양성과 관련성, 공존성, 융합, 전개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작가들은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수없이 보고, 생각한다. 또 작가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이런 창의적이고 고유한 표현은 작가의 작품성과 작품내용, 비법 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구하며, 더불어 우리가 놓여 있는 위치와 문화적, 사회적인 요소들을 접목시켜 생각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것은 학생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특히 인공 환경은 인간에 의해 조성되었지만 형성된 후, 인간의 의식과 태도를 결정하게 되는 강한 외적요소로 작용하게 된다고 한 바 있다. 독일의 심리학자 레빈(K. Lewin)<sup>97)</sup>은 인간의 행동은 개체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의 상호 작용에 의해서 정해진 생활공간의 구조에 의존한다고 보고 교육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상 생활공간의 구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환경조형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승화하며 다른 학생들과 협동심을 키우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간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사회적 상호관계로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 3. 환경조형을 이용한 미술교육 방안

환경조형물은 학생들의 입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미술작품이다. 이에 작품의 관찰은 미술교육의 중요한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형물은 전술한 바와 같이 본질주의적 측면 즉, 인간의 경험과 이해에 대한 기여, 심미적 사고능력, 미적 감수성의 함양, 독특한 개성과 문화적 자원의 향

---

97) 독일 태생의 미국 심리학자(1890 - 1947). 나치스의 핍박을 받아 미국으로 이주하여 사회적 장의 역학적 합성 및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방법으로 집단행동 등 게슈탈트 심리학을 이용하였고, 정의와 욕구를 연구하여 위상 심리학을 제창하였다.

유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맥락주의적 측면에서는 창의력 및 미적 안목 육성, 표현력 향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체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을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환경조형물 만이 가진 특성인 도시공간과 자연스럽게 융화되는지는 환경적 조건에 해당하며 개체적 조건은 미술작품으로서의 예술성에 해당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의 교육은 학생의 발달과정을 바탕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에게 환경과의 조화나 사회적 의미의 파악을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을 학생의 발달과정을 바탕으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미술과의 수준별 미술목표를 반영해야 한다.

2011년 고시된 개정교육과정의 미술과 교육목표는 초등학교 과정과 중학생 과정은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미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와 같이 환경조형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목표가 존재한다. 고등학생의 경우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미술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의 세 가지 목적 모두 환경조형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존재가치와 맥락이 통한다. 이러한, 환경조형물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미술교육 목표는 미적 판단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존재가치까지 판단해야 하는데 그 순서는 개별적인 작품으로서의 가치 즉, 개체적 조건과 도시자연과의 융화 및 사회적 가치 즉, 맥락적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해야 한다.

<표 7>과 <표 8>은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구체적 교육내용인데, 이 내용은 환경조형물 교육에 연관시켜 구체적 교육방안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표 7> 초등학교, 중학교의 미술교육 내용

| 영역 | 초등학교   |   | 중학교   |
|----|--|---|---|
|    | 3~4학년  | 5~6학년   | 1~3학년   |
| 체험 | *지각<br>주변 대상을 탐색하여<br>느낌과 생각을 다양한<br>방법으로 나타내기 | *지각<br>주변 대상이나 현상, 자<br>신의 특징을 발견하고 다<br>양한 방법으로 나타내기 | *지각<br>주변 환경과의 관계속<br>에서 대상과 자신을 이<br>해하고 조화 발견하기           |
|    | *소통<br>생활 속에서 시각 문<br>화를 찾아보고 탐색하<br>기         | *소통<br>시각 문화의 소통 방식<br>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 *소통<br>시각 문화의 사회적<br>가치를 이해하고 참여<br>방안을 모색하기                |
| 표현 | *주제표현<br>다양한 주제를 탐색하<br>여 자유롭게 표현하기            | *주제표현<br>체계적 발상을 통하여<br>주제의 특징과 느낌을<br>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주제표현<br>창의적인 발상을 통해<br>주제의 특징과 목적을<br>표현하기                 |
|    | *표현방법<br>기본적인 재료와 용<br>구, 표현방법을 탐색<br>하여 표현하기  | *표현방법<br>다양한 표현 방법의 특<br>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br>로 표현하기       | *표현방법<br>표현 방법과 매체를<br>창의적으로 활용하고<br>계획을 세워 표현하기            |
|    | *조형 요소와 원리<br>조형 요소와 원리를<br>탐색하여 표현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br>조형 요소와 원리의 특<br>징을 이해하고 효과적으<br>로 표현하기  | *조형 요소와 원리<br>조형 요소와 원리으<br>시각적 효과를 이해하<br>고 창의적으로 표현하<br>기 |
| 감상 | *미술사<br>미술의 시대적, 지역<br>적 배경에 흥미와 관<br>심 갖기     | *미술사<br>미술의 시대적, 지역적<br>특징을 알아보고 문화적<br>전통을 이해하기      | *미술사<br>미술의 변천 과정과<br>가치를 문화적 맥락에<br>서 이해하기                 |
|    | *미술비평<br>공공 조형미술 작품에<br>흥미와 관심 갖기              | *미술비평<br>미술비평활동의 과정과<br>방법을 익히기                       | *미술비평<br>미술비평활동을 통해<br>작품의 의미를 해석하<br>고 판단하기                |

출처: 교육과학부(2011).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부 고시 제 2011-361. 별책 1

미술교육의 내용과 체계를 보면 3~4학년의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 5~6학년의 표현영역에 해당하는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중학교 과정의 표현영역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와 감상영역에서 “미술의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는 환경조형물을 이용하여 “환경조형물에 대한 미적 감수성을 기른다”, “환경조형물의 느낌과 생각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환경조형물의 가치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라는 목표를 세워 환경조형물을 교육의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표 8> 고등학생의 미술교육 내용

|           |           |  |
|-----------|-----------|--|
| 미술의<br>기능 | 미술과<br>언어 |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br>개인적 의미와 현대의 사회적 현상 등을 시각 이미지나 미술 작품으로 나타내기 |
|           | 미술과<br>생활 |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기<br>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을 계획하고 제작하기                   |
| 미술의<br>감상 | 분석과<br>해석 | 미술 작품의 조형적 특징 분석하기<br>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
|           | 판단과<br>활용 | 미와 미술의 다양한 가치 판단 기준 이해하기<br>다양한 비평의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비평문 작성하기                          |
| 미술의<br>확장 | 미술과<br>직업 | 미술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 세계에 대하여 알아보기<br>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미술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하기                   |
|           | 미술과<br>통합 |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br>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미술에 창의적으로 적용하기      |

출처: 교육과학부(2011).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부 고시 제 2011-361. 별책 1

고등학교 미술교육은 환경조형물의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교육 가능하다. 미술기능 영역의 “시각 언어로서 미술의 개인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 “미술감상 영역의 “미술 작품과 작가를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와 미술의 확장 영역의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는 사회적 가치 및 맥락적 조건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다. 각 지역마다 특징적으로 설치된 환경조형물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학생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는 학습자료가 됨으로써, 원활한 상호작용 학습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환경조형물을 이용한 고등학교 미술 교육목표는 “환경조형물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미술의 기능과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한다.”, “ 환경조형물의 변화와 흐름을 이해하고 비평적 관점에 근거하여 미적 가치를 판단한다”, “환경조형물과 같이 도시환경의 하나로 확장된 미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한다.” 와 같은 미술교육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형물을 사용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는 각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 있는 환경조형물을 수업의 소재로 끌어들인다. 둘째, 각 단계에 맞는 탐색내용을 제시한다. 각 단계에 해당하는 교육영역과 내용 및 각 내용에 해당 하는 본질주의 측면과 맥락주의 측면 및 개체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은 <표 9>와 같다.

<표 9> 환경조형물을 활용한 미술교육 계획

| 교육 과정         | 교육 영역 | 교육내용  | 교육의 방향과 주안점                      |
|---------------|-------|---|----------------------------------|
| 초등학교<br>3~4학년 | 표현    | 환경조형물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                           | -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br>- 개체적 조건   |
| 초등학교<br>5~6학년 |       |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환경조형물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 -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br>- 개체적 조건   |
| 중학교           | 표현    | 환경조형물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 -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br>- 환경적 조건   |
|               | 감상    | 환경조형물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 - 사회적 자본으로서 맥락주의적 측면<br>- 환경적 조건 |
| 고등학교          | 기능    | 시각 언어로서 환경조형물이 주는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                    | -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br>- 환경적 조건   |
|               | 감상    |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 - 사회적 자본으로서 맥락주의적 측면<br>- 환경적 조건 |
|               | 확장    | 환경조형물을 통해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 모든 영역을<br>복합적으로 해석               |

이러한 교육적 접근은 단계별로 환경조형물을 미적 대상으로 이해한 후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가치를 단계별로 접근 하고, 마지막으로 환경조형물을 통해 미술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생생한 미술 교육의 방법이 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 1. 연구 결과 요약

환경조형은 인간이 만든 도시환경과 시각적·공간적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예술적 조형물을 의미한다. 환경조형은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대중들의 예술적 체험과 정서적 안정을 제공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환경조형은 사회적 자본으로 취급될 수 있다.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되는 실제적인 혹은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이다.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조형의 확대는 조형물이 가지는 미적 관점을 넘어 사회적 수준과 소통을 넓히는 가능성 및 사회적 의미를 구현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환경조형을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환경조형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이해하고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환경조형은 도시환경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키워주는 기능이 있는데,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삶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 공공미술을 통해 도시환경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을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생활 가까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근한 미술작품으로서 환경조형은 언제나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 미술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환경조형은 소통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조형의 교육적 가치는 먼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위적인 활동들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인식하게 할 수 있게 하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 또한 부담 없는 접촉으로 인해 관찰력, 사고력, 직관력, 상상력, 지각력, 표현력, 창의력 등 미적 정서와 미

적 능력 등이 개발되고 열린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나아가 환경조형은 전반적인 도시 계획이나 기존 도시의 재개발에 기여하는 미적 요소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그들의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도시가 갖고 있는 제 문제의 해결을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단순한 목적으로 장식이나 미화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도시 생활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조형을 활용한 미술교육은 현대인의 삭막한 생활공간의 정서적 불안을 해소시켜 줌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게 된다.

이에 환경조형을 이용한 미술교육은 시기별로 구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미술과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시기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는데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3~4학년의 경우 주변대상의 탐색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3~4학년 과정은 몸의 다양한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의 자연물과 인공물을 탐색하고 느낌을 이야기하는 성취기준에 제시되는바<sup>98)</sup> 탐색의 대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때 조형요소와 표현방법 등 성취목표를 중심으로 교육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5~6학년은 제작의도와 목적 등 설치목적과 의도를 도출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환경조형에는 작가의 의도가 내재된 만큼 이 시기에는 표현의도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즉 초등학교 시기는 주로 표현을 중심으로 “환경조형물의 조형 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표현하기”, “체계적인 발상을 통하여 환경조형물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근은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과 개체적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사회 및 주위환경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중심으로 교육될 필요가 있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주변 환경과 대상의 조화의 이해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즉 중학교 시기는 표현과 감상을 중심으로 “환경조형물의 특징과 목적을 표현하기”;

---

98) 교육과학부(2011). 미술과 교육과정. 교육과학부 고시 제 2011-361. 별책 13.

“환경조형물 변천 과정과 가치를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기”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며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과 사회적 자본으로서 맥락주의적 측면을 환경적 조건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미술의 기능 즉, 시각 언어로서 환경조형이 가지는 미술적 표현과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환경조형 교육이 필요하다. 즉, 생활을 디자인하고 개선하는 다양한 미술의 기능을 이해하고, 감상 대상의 조형적 특징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해석하며,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각 언어로서 “환경조형물이 주는 사회적 소통에 관하여 이해하기”, “환경조형물이 가지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해석하기”, “환경조형물을 통해 미술과 그 밖의 예술, 과학, 기술, 환경 등 다양한 분야와의 통합을 이해하기” 등의 교육내용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미술작품으로서 본질주의적 측면, 사회적 자본으로서 맥락주의적 측면, 개체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 2. 시사점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자본의 확충을 위한 환경조형을 활용한 바람직한 미술교육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조형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자본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형은 설계 및 조성과정에서 도시미관의 개선 및 실용적 기능의 제공이라는 환경조형의 본원적인 기능과 더불어 사회적자본의 확충 관점에서도 환경조형의 설치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조형 미술교육은 무엇보다도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대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의 참여 의식과 소통의 문화를 함양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환경조형물이 마련되고,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조형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 커져야 한다.

셋째, 환경조형물을 활용한 교육은 발달수준과 미술교육의 구체적 목표를 바탕으로 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 까지 표현중심에서 확장에 이르기 까지 개체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단계별로 습득하여 환경조형이 주는 미술작품으로서의 가치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연구과정에서 사회적 자본과 환경조형에 대한 전문서적 및 선행연구를 통하여 환경조형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도출함은 물론 환경조형이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조형 미술교육이 사회적 자본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환경조형 미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통하여 환경조형 미술교육이 사회적자본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강인재 외(2005). 자립적 지역발전 모델. 서울: 대영문화사.
- 강철기(1991). 환경과 조각. 서울: 대우.
- 김명수(2010). 사회적자본 형성에 관한 초등학교평생교육 참여자의 인식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명수(2010). 위의 논문.
- 김삼량(1988). 미술교육개론. 미진사.
- 김석(2011). 현대 환경조각과 공공미술의 양가성 고찰. 기초조형학연구, 12(6), p.85-97.
- 김선희(2011). 도시환경과 사회적 자본. 도시문제, 46(513), p.25-28.
- 김성태(2012). 관광특구지역의 사회적 자본과 로컬관광거버넌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희(2011). 3D시뮬레이션 사용에 따른 국내 환경조각의 조형적 변화상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윤수(1978). 미술의 역사, 서울: 삼성출판사.
- 김인주(2013).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미술과 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일태(2001).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정부의 역할- 도시의 사회적 자본과 문화산업. 삼우사.
- 김향미(2009). 환경미술교육의 방향과 내용탐색. 미술교육논총. 23(1), p.271-292.
- 대한국토계획학회(1987), 도시의 계획과 관리. 서울: 집문당.
- 마정혜(2010). 사회적 자본에 기반한 체험콘텐츠 디자인이 지역 과학관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부록 2.

문화예술진흥법 제정이유.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필 역(1979).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 열화당.

박시환(1991). 부산시 환경조각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5), p.285-296.

박용순(2009). 사회적 자본이 농촌관광마을에서 주민통합과 삶의 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일호(2002). 환경미술의 의미와 전망 : 생태학과 미술. 현대미술학 논문집, 6, p.67-93.

박찬웅(2006). 시장과 사회적 자본. 서울: 그린출판.

박희봉(2009). 사회자본: 불신에서 신뢰로, 갈등에서 협력으로. 조명문화사.

박희봉·김명환(2001).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 측정과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4(4), p.119-237.

변건호(2012). 공동주택 단지내 옥외공간을 위한 환경조형작품 제작 및 설치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15(3), p.70-86.

서순복(2007).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분석과 환경변화에 따른 입법방향. 문화정책논총, 18, p.69-100.

소홍렬(1997). 도시환경과 동상의 의미 - 서울의 동상조각. 공간, 121(7), p.17-24.

심문섭(1994). 도시환경과 환경조각. 중앙대학교 예술연구소.

아이스너(1995). 새로운 눈으로 보는 미술교육, 서울대학교 미술교육연구회 역. 예경.

안미정(1988). 도시환경과 조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어호선·고웅곤(2013). 이사무 노구치 환경조각의 공간개념에 관한 연구. 디지털정책연구, 11(1), p.447-457.

유석춘 외(2003). 사회자본 이론과 쟁점. 서울: 그린.

유성웅(1988). 현대미술의 전개와 비평 : 대중과 환경조각. 미진사.

- 이경성(1974). 한국 근대미술 연구. 서울: 동화출판사.
- 이광재(200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발의 자료. 국회 미술관 및 박물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이무용(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 이정주(2006). 환경조각 조형설계. 경춘사.
- 이철재(2008).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에 따른 환경조형물의 실태조사 연구 : 경기도 화성시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수(2011), 사회적 자본 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접근, 도시문제, 46(513), p.20-24.
- 임춘배, 도시공간에서의 환경조형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정영목(1993). 미국의 미술사와 문화정책 : 20 세기 미술문화에 나타난 미국적 특성과 성격. 미술사학 7, p.63-83.
- 진인혜(2007).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 p.304-324.
- 천현숙(2004). 대도시 아파트 주거단지의 사회자본. 한국사회학, 38(4), p.215-247.
- 최병상(199.). 환경조각. 미술공론사.
- 최종덕(2007). 사회자본 형성을 위한 시민교육의 방향. 시민교육연구, 39(4), p.135-161.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3). 주요외국의 문화예산 비교연구. p.182-18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6), 예술의 산업적 발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차 시각예술정책포럼, 아르코미술관, 2006년 10월 26일.
- 홍현미라(2005). 지역사회 변화전략으로써의 자원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 자본(Social Capital) 관점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기원(1978). 인간의 생활환경과 조각. 서울: 공간.

- Bourdieu, P.(1986). The forms of capital.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 Greenwood.
-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95-120.
- Coleman, J. S.(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 David, R., 류균일 역(2011). 고독한 군중. 동서문화사.
- Fukuyama, F.(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구승회 역,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 Herbert, R. 이희숙 역(1984). 조각이란 무엇인가. 이희숙 역. 서울 : 열화당.
- Journal Officiel(1959). décret N. p.59-889.
- La politique culturelle en débat,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aris, 2006.
- Lewis, M., 김문환 역(1975). 예술과 기술. 서울: 을유문화사.
- Lin, N.(2001).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2001.
- Portes, A.(1995).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 p.65-78.
- Putnam, Robert D.(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Pye, L. W.(1999). Civility, Social, and Civil Society: The Powerful  
Concepts for Explaining Asia.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9(4), 763-782.

Robinette, A.(1976). Outdoor sculpture, New York: Whitney Library of design.

Serageldin, I. & Grootaert, C.(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n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p.40-58.

Stone, W.(2001). Measuring Social Capital: Towards a Theoretically Informed Measurement Framework for Researching Social Capital in Family and Community Life.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Tarrow, S.(1996). Fishnets, Internets and Catnets: Globalization and Transnational Collective Action. In Hanagan, M., Moch, L. & Brake, W. T. eds. The Past and Future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Woolcock. M(1998).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 27(2), p.151-208.

